

20
2004-2024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atv
2024 06+07
vol.175
성남문화재단

2024 June & July
Vol.175

a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BLKDOG

HIP HOP DANCE THEATER

미리보기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
아티스트 토크 안무가 보티스 세바
지휘자와의 대화 이병욱·최희준·이승원·홍석원
트렌드 리퀴드폴리탄과 위케이션

Contents

2024 06+07

Vol.175

B L K D O G	
미리보기 보티스 세바 & 파 프롬 더 놀 <블랙독>	04
아티스트 토크 안무가 보티스 세바	08
칼럼 현대 춤 예술 속에서 만나는 힙합	14

표지 이미지
지휘자 이승원 © Tae-wook Kang
보티스 세바 & FFTN © Helena Maybanks/Camilla Greenwell
이계진, <소금산수> 시리즈 중 details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2024년 06+07월호

통권 175호(비매품) 2024년 6월 4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서정림 | 편집인 심보미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24 |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 shutterstock

V I E W	
미리보기 1 성남작가조명전 3 <이계진: 우연한 삶>	20
미리보기 2 2024 발레스타즈	22
미리보기 3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 1-1	24
미리보기 4 마티네 콘서트 6월·7월	28
지휘자와의 대화 이병욱·최희준·이승원·홍석원	32
인사이트 지휘 콩쿠르 깊이 보기	42



© Camilla Greenwell

S E O N G N A M +	
아카데미 아카데미플러스 명사 특강 '낭만과 열정'	78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80
6+7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85
SNART NEWS	92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6



소금산수 133, 2023, 장지 위 먹과 소금, 116x91cm © 이계진

C U L T U R E +	
BOOK 영상의 원작을 만나다	50
이럴 땐 이런 앱 크리에이터 정구호	52
시네마 클래식 영화 <오펜하이머>와 스트라빈스키	54
트렌드 1 리퀴드폴리탄과 워케이션	58
트렌드 2 책, 트렌드가 되다	64
생활 속 디자인 집이 은유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68

블랙독

04 미리보기
보티스 세바 & 파 프롬 더 놈 <블랙독>

08 아티스트 토크
안무가 보티스 세바

14 칼럼
현대 춤 예술 속에서 만나는 힙합

BLKDOG

HIP HOP DANCE THEATER

Botis Seva & Far From The Norm



힙합으로 표현한 젊음의 억압과 절망



© Camilla Greenwell

보티스 세바 & 파 프롬 더 놈 <블랙독>

내년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성남아트센터는 무용 공연을 자주 올리는 극장은 아니다. 하지만 무용 공연 자체의 주목도는 꽤 높은 편인데 이는 선택과 집중에 탁월하다는 의미다. 특히 해외 초청 무용 공연의 경우 몬테카를로발레단, 키부츠댄스컴퍼니, 중국국가발레단, 윌리엄 포사이스, 마츠 에크, 올리비에 뒤부아, 에미오 그레코, 중국가극무극원 등의 대표작들을 소개하며 전문가는 물론 애호가와 일반 관객들까지 만족시켰다. 그렇기에 성남아트센터에서 언젠가, 어떤 해외 무용을 선보일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오는 6월 22일과 23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국내 초연을 앞둔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춤에 빠진 소년, 힙합의 스타가 되다

<블랙독>은 '힙합 댄스 시어터hip hop dance theater'라고 할 수 있는데, 힙합을 중심으로 하여 극적인 전개를 펼치는 춤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이는 안무와 연출을 맡은 보티스 세바Botis Seva의 예술적 특질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1991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보티스 세바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 지역 청소년 클럽에서 자작 랩과 비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학교 때 춤을 접한 후 그 매력에 푹 빠졌으며, 17세쯤에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춤을 업*으로 삼기 위한 과정을 밟아 갔다. 힙합, 신체극, 현대무용 등 다양한 춤 영역을 넘나드는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세바는 점차 영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힙합 춤 공연의 선두 주자로 일컬어지게 된다. 세바의 창작은 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극적 요소, 영상, 텍스트, 디지털 매체 등 여러 분야를 흡수했다.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혁과 자전적 경험에 근간한 창작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번 <블랙독>에서도 그 예술적 특질이 뚜렷하다.

보티스 세바가 19세였던 2009년에 런던에서 창단한 '파 프롬 더 놈 Far From The Norm, 이하 FFTN'은 '평범함에서 벗어나다'는 명칭 그대로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힙합 공연 단체다. 구체적으로는 팝핀부터 브레이킹, 크럼프, 하우스까지 다양한

춤을 넘나드는 한편 현대무용처럼 공연예술화된 장르의 특질 또한 느껴진다. 이렇듯 독창적이고 실험적이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고도로 숙련된 활동을 지향하며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2015년경 그는 예술가로서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새들러스 웰스 Sadler's Wells 극장의 힙합 댄스 페스티벌 '브레이킹 컨벤션 Breakin Convention'에서 제공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안무와 연출 등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시간은 세바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좀 더 공고히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세바는 영국뿐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콜롬비아 등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갈 기회를 얻게 된다.

슬픔과 절망을 견뎌낸 모두를 향한 위로

보티스 세바는 그동안 정치적·사회적 이슈와 동 시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며 평범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창작으로, 일관된 주제 의식을 지향해 왔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힙합의 공연예술화라는 새로운 무대 언어를 통해 때론 감각적으로 때론 사유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차별화된 연행(演行)을 펼치는 FFTN에 전 세계 극장과 축제가 러브콜을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6월 성남아트센터에서 소개하는 <블랙독>에는 이러한 예술적 특질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블랙독>은 2018년 세계 초연 당시, 런던 새들러스 웰스 극장의 20주년 기념 위촉 공연으로 제작되어 전문가 집단과 일반 관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고 이는 곧 전 세계적인 관심도로 이어졌다. 해당 극장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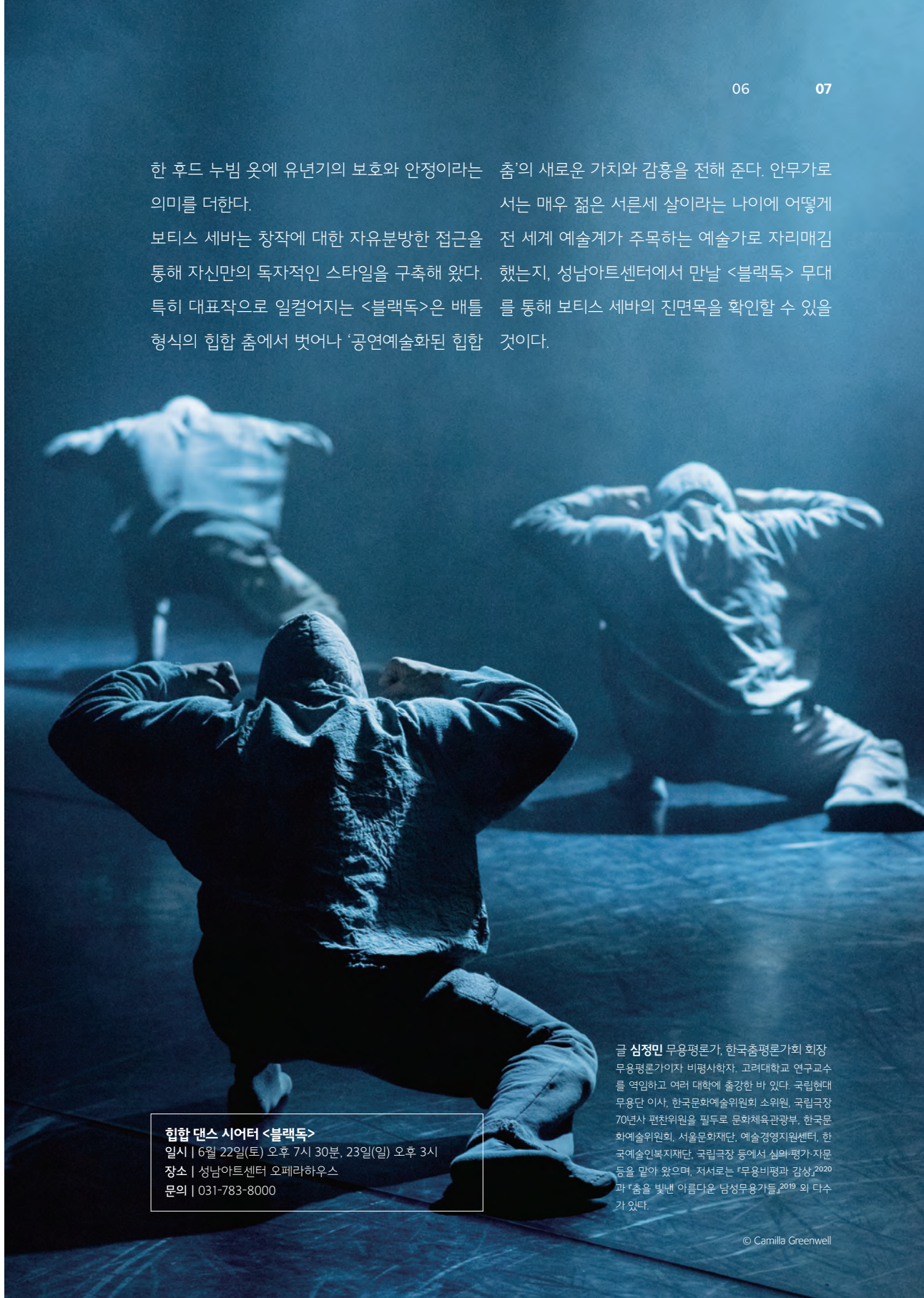
프로그램머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가장 정서적으로 지능적이고 신체적으로 혁신적이며 근면하고 영감을 주는 새로운 스타일의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작품의 성공은 공연예술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올리비아상의 '최우수 무용 신작' 부문 수상으로 증명되었다.

<블랙독>은 보티스 세바가 어린 시절 흑인으로 서 겪은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청년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에 담은 작품이다. 실제로 그는 "블랙독은 트라우마와 슬픔의 시간을 지나 온 모두를 위한 작품이다. 우울증이나 상실의 고통을 겪는 가족을 묵묵히 지켜보아야 했던 모두를 위한 작품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블랙독>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아름답고 감각적이면서도 어둡고 잔혹한 춤적 기록이다. 지겹게 따라다니는 유년기의 기억과 성인기의 트라우마 앞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자문하고, 자아 발견이 자아 파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힙합을 중심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예리한 사회의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음악, 조명, 의상과의 협업적 접근 역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 온 작곡가 톨벤 실베스트 Torben Sylvest는 때론 리드미컬하고 때론 감성적인 선율로 내면의 복잡 미묘한 감정의 추이를 적절하게 돌운다. 조명을 맡은 톰 비서 Tom Visser는 삶의 밑바닥을 파고드는 환멸을 무채색 톤의 어두운 빛으로 표현한다. 의상을 맡은 라이언 도슨라이트 Ryan Dawson-Laight는 힙합에 어울릴 만

한 후드 누빔 옷에 유년기의 보호와 안정이라는 의미를 더한다. 보티스 세바는 창작에 대한 자유분방한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해 왔다. 특히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블랙독>은 배틀 형식의 힙합 춤에서 벗어나 '공연예술화된 힙합

춤'의 새로운 가치와 감흥을 전해 준다. 안무가로서는 매우 젊은 서른세 살이라는 나이에 어떻게 전 세계 예술계가 주목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 했는지, 성남아트센터에서 만날 <블랙독> 무대를 통해 보티스 세바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
 일시 | 6월 22일(토) 오후 7시 30분, 23일(일) 오후 3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 031-783-8000

글 심정민 무용평론가,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무용평론가이자 비평사학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여러 대학에 출강한 바 있다. 국립현대무용단 이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 국립극장 70년사 편찬위원을 필두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극장 등에서 심의·평가·자문을 맡아 왔으며, 저서로는 『무용비평과 감상』²⁰²⁰과 『춤을 빛낸 아름다운 '남성무용가들'』²⁰¹⁹ 외 다수가 있다.

세상에 맞서 싸우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안무가 보티스 세바

런던 출신의 안무가 보티스 세바^{Botis Seva, 1991-}의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춤으로 건네는 특별한 위로이자 헌사다. 힙합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안무를 창조하는 세바는 <블랙독>으로 세계 공연계에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올리비에상을 수상²⁰¹⁹한 데 이어, 글로벌 브랜드 샤넬이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갈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샤넬 넥스트 프라이즈^{CHANEL Next Prize}의 첫 수상자²⁰²² 선정 그리고 영국의 대표 무용 공연장 새들러스 웰스의 협력예술가 합류²⁰²⁴ 등 현재 가장 각광받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하고 있다. <블랙독> 한국 초연을 앞두고 들어 보는 세바의 예술과 <블랙독>에 관한 이야기들.

FFTN & BOTIS SEVA

<블랙독>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압축한 에너지이자,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트라우마와 슬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작품입니다

© Rick Guest

처음 '춤'에 빠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술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열다섯 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다닌 중학교에 무용과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외부 안무가들의 초빙 수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곤 했죠. 예를 들면 힙합 댄스 컴퍼니 아방가르드 댄스 Avant Garde Dance의 토니 아디건 Tony Adigun 같은 안무가의 수업이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열리는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 다양한 지역 댄스 플랫폼에서 소규모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돌아보면 제가 무용을 시작한 계기는 사실 음악입니다. 춤을 추기 전까지는 지역 청소년 클럽에서 랩을 하고 그라임 뮤직(Grime music)에 빠져 있었거든요. 힘든 학교생활, 선생님들과의 갈등과 제약 속에서 음악은 제게 자유를 주었고 춤은 좌절감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어 주었죠.

힙합 무용단 파 프롬 더 노름(Far From The Norm, 이하 FFTN)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자신의 무용단을 만들게 되었나요?

FFTN은 런던 대거넘(Dagenham)의 청소년 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시작했습니다. 제가 워낙 다양한 아티스트와 스타일, 언어 교류에 관심이 많아서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비공개 워크숍 세션에서 함께 배우고 연습하곤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짧은 작품들을 지역 스트리트 댄스 신에서 선보였는데, 레안 페로(Leanne Pero) 주최로 크로이던의 페어필드 홀스(Fairfield Halls) 극장에서 열린 스트리트 댄스 대회 '킵 잇 무빙(Keep It Moving)' 참가가 FFTN의 첫 공연이었죠.

현재 FFTN은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와 출신의 무용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거나 현대무용 학교 출신 무용수, 또 일부는 저처럼 1년 과정의 뮤지컬 시어터를 공부한 무용수도 있죠. 단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감정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거나 직접 안무를 창작하면서 창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성남아트센터에서 한국 초연으로 선보일 <블랙독>은 일단 타이틀이 인상적입니다. '검은 색'과 '개'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블랙독>은 '우울증(depression)'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인간의 마음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트라우마와 슬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작품이기도 해요. <블랙독>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압축한 에너지이고, 관객과 무용수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마주한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블랙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주제에 깊이 파고들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이 공연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작품입니다. 초반에는 나이가 들어 가면서 세월을 아쉬워하는 아티스트의 치열한 내면을 탐구하는 내용이었지만, 고민 끝에 그보다는 '인간이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을 얼마나 많이 억압하고 있는지에

우리 모두가 저마다 마주한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블랙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 대처해야 하는 문제 중 상당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이해하기 위해 캐릭터의 어린 시절을 더욱 파고들었죠.

궁극적으로는 시적인 힘, 즉 젊은 세대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블랙독>은 2018년 새들러스 웰스에서 선보인 뒤로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작품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많아지면서 내용에 약간의 변화도 생겼죠. 관객들이 공연에 와서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영감을 받아 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작품이 조금씩 변화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렌펠 타워(Grenfell Tower 화재)²⁰¹⁷로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지켜 봐야 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펼쳐졌죠. 2020년 흑인 청년 아모드 아베리(Ahmad Arbery)가 조깅 중 억울하게 총격으로 사망했고 뒤이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이 일어나면서 'Black Lives

Matter'로 대변되는 흑인 인권 운동이 격화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4년 동안 이 모든 일이 벌어졌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입니다. 팬데믹 속에 갇혀 지내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지켜보는 동안, 그 상황에 분노하지 않기란 힘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블랙독>을 다시 살펴보았죠. 팬데믹 이전에는 <블랙독>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관객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억눌러 왔던 과거를 마주하는 세계로 여러분을 데려갈 수는 있죠.

작품의 창작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모든 과정은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명확한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모든 작품이 소명이라고 믿어요. 마치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어떤 느낌이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라고 할까요? 오랜 시간 조사하고 대화하고 관찰하면서 연습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작업 과정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많은 의견을 나눕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작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저 나만의 생각이 아닌 무대 위 모든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죠.

창작 과정 속에서 얻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술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는 최선을 다해 삶을 헤쳐 나가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겸손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블랙독>을 통해 관객들이 무엇을 느끼기를 바라나요?

<블랙독>은 다양한 기억을 바탕으로 미로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스토리를 파악하고 누군가는 그저 이미지의 연속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어 가느냐는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말이죠.

무대에서 어떤 점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빠르게 흘러가는 고난의 여정과 성찰의 순간들입니다. 일렉트로닉과 힙합을 바탕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짜릿함을 선사하는 음악, 힙합 스타일 안무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리트 댄스 스타일 속 형태와 기초를 가지고 놀며 자유로운 형태의 언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투어 공연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평소 극장에 잘 가지 않는 분들이 <블랙독>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대단할 것 없는 환경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작품입니다. 공연 애호가들이 많이 보러 오시는 것도 당연히 좋죠. 사람들이 무대를 보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공감하는 것이 제겐 중요해요.
둘째는 작품이 살아 숨 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공연을 라이브로 지켜보고 계속 다듬으면서, 작품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최종 완성' 버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2017년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로 첫 내한 당시 <ZEN 20:20>이라는 작품을 선보이셨지요. 한·영 문화교류 차원에서 현장 워크숍을 통해 한국 무용수를 선발하고 작품을 만들어 가는 색다른 협업이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의 기억과 이번 내한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국 무용수들이 열심히 참여하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집중력이었죠. 사람들은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정중했죠.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좋아해서 이번에 동료들과 한국을 다시 찾을 날이 매우 기대됩니다. 2017년에는 우리의 작품을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력해 만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이번 내한 공연은 한국 관객에게 <블랙독>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영화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라이브 공연으로는 어렵지만 영화로는 구현 가능한 부분들, 그 가능성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싶습니다. 음악 작업도 다시 시작하고, 아이들을 위한 책도 쓰고 싶네요.

거리에서 극장으로, 힙합의 진화



© shutterstock

현대 춤 예술 속에서 만나는 힙합

1999년, 세기말에 나온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이 노래는 첫 대목부터 "음악 같지 않은 음악을 이제 모두 다 집어치워 버려야 해, 우리가 너희들 모두의 귀를 확실하게 바꿔 줄게 기다려"라는 도전적 선언을 펼치며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에도 힙합 음악이 있었지만, 이 곡은 가사 그대로 기존의 음악과 다른 리듬 그리고 지껄이는 듯한 가사 전달 등 우리에게 새롭게 힙합을 알린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힙합은 또 다른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하며 이어졌고, 많은 마니아도 만들었습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소미더머니>의 경우 대중에게 다가서며 힙합을 알린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힙합은 '음악'이 중심에 놓이지만 힙합에 따른 움직임, 힙합 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위키피디아에서는 힙합을 '1970년대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춤과 대중음악으로부터 파생된 거리문화'라 말합니다. 음악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다양한 움직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힙합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문화를 형성한 것이지요.

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브레이킹, 비보잉, 스트리트 댄스, 힙합 등의 용어일 텐데요, 스트리트 댄스는 힙합hip hop, 락킹locking, 왁킹Waacking, 팝핀 Popping/Poppin, 하우스house, 보깅voguing 등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보잉, 브레이킹 등의 요소가 강한 힙합 춤을 스트리트 댄스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힙합 춤이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여러 요소를 보편적으로 포괄하면서도 그 개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기에, 대표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할 수 있지요.

'힙합 춤'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리듬에 따른 즉흥적이면서 자유로운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순간에 따라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텀블링·헤드스핀 등 고난도의 기술에서 보듯 철저하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무용보다 훨씬 내공이 필요한 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짧은 순간 응집력을 보이며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힙합 춤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것이 겨루기, '배틀'입니다.

배틀은 힙합 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힙합의 출발부터 이루어진 행위인데요,

거리문화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을 뽐내려는 의식이 발생했을 겁니다. 열린 공간 속 즉흥적 행위를 통해 순간의 감정을 극대화하지만, 단지 거품을 넘어 힙합 춤이 지니는 융합적 상생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거품은 경연이 아닌 공동체적 신명을 불러일으키며 춤추는 이들뿐만 아니라 관객도 그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힙합, 대중 속에서 예술이 되다

힙합 춤은 조금씩 대중과 호흡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대공연예술로서 힙합 춤의 수용과 확장은 그중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어찌 보면 힙합의 자유분방함, 특히 배틀 문화와 같은 특징은 무대공연예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힙합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서히 예술적 가치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힙합 춤이 무대공연예술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초기작으로는 2000년대 처음 공연한 고릴라 크루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와 익스프레스션 크루의 <마리오네트>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장르의 춤꾼이 경계를 허물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그리 복잡하지 않고 비보잉 그리고 배틀을 이야기 구조에 담아 역동적인 무대를 펼치는 작품이지요. 이 작품은 <난타>와 더불어 난버벌 퍼포먼스 대표작으로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었고 미국 브로드웨이 장기 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외에서 호평받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션 크루의 <마리오네트>도 힙합 춤의 확장과 새로운 가치를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배틀이나 역동성보다는 서사 구조를 통해 춤을 이야기로 풀어 놓으며 뮤지컬 혹은 마술쇼를 보는 듯한 환상적 요소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거기다 정교한 춤사위에 미디어 아트 요소가 수용되는 등 동시대적 감각까지 더했는데, 2008년 첫 공연이 이루어진 이래 스트리트 댄스의 모범적 변용 사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힙합 춤의 변용과 더불어, 어린 시절 스트리트 댄스를 하다가 무용계에 입문해 개성을 펼치는 인물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설진, 김보람을 꼽을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 9 시즌2> 우승자로 기억하는 김설진은 어린 시절 스트리트 댄스와 가수 백댄서 생활을 하다 현대무용으로 전환하면서 동시대 가장 개성 있는 현대무용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보람도 스트리트 댄스 그리고 백댄서 생활을 하다 '엠비규어스컴퍼니'라는 단체를 창단, <바디 콘서트> 등의 작품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넘나들며 한국 무용이 지니는 엄숙주의를 탈피해 신기원을 펼쳐 보였죠. 그의 작품을 본 일이

없더라도 이날치 밴드와 협업한 <범 내려온다>는 모르는 이가 드물 정도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설진과 김보람 모두 힙합 춤이 지니는 본능적 리듬, 현대무용의 개성적이며 실존적인 표현 양쪽을 탁월하게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지녔죠.

이러한 흐름과 함께 힙합을 수용해 공연예술로 융합을 이루는 경우도 최근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기획공연 <HEP 합(습)>도 그 예입니다. 이 공연은 이 시대 가장 '힙'한 안무가에게 묻는 시대적 화두로서 'HEP'의 의미와 장르 간 협업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인데, 대부분의 안무가는 힙합 문화를 수용해 이를 작품 속에 융화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2021년 공연에서는 김설진·김보람·이경은 안무가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 중 이경은의 <브레이킹>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가 어우러진 무대였죠. 힙합이 가지는 즉흥적인 표현이 서사적인 인과 관계 속에서 표출되었는데, 현대무용의 추상적 모호성과 스트리트 댄스에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적 흥취가 조화를 이루며 긴 호흡으로 관객과 소통했습니다.

최근 이경은 안무가는 지난 5월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 10명이 어우러진 무대 <올더윌즈>를 선보였는데, 안무가가 펼치고자 한 것은 '다차원의 세상으로 끝없이 변신하는 초감각의 몸, 춤추는 자유, 온 세상이 놀이터'란 점이었습니다. 결국 춤은 감각적이지만 의식의 표현이고, 일상과 실존적 감각 속에서 춤추는 이들의 협업과 개성을 드러내는 속에 '살아 있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무용 속에 나타난 힙합을 바라볼 때에는 '작품의 서사 구조 속에서 내면의 분출이 어떻게 실존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사유하면 어떨까 합니다.

스트리트 문화는 우리 일상 속에 조금씩 더 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댄싱9> <스트리트 무언 파이터> 등의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2024 파리 올림픽에 '올림픽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또 다른 확장을 이어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제는 서울예대, 백석예대, 서경대, 한국체대 등에서 실용무용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외연 역시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간직하면서도 다원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며 대중과 호흡하는 힙합 문화의 새로운 진화를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글 김호연 춤평론가

꼼꼼한 관객의 입장에서 춤평론을 쓰는 춤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문화연구소 케이코원 연구위원으로 한국 공연예술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근대무용사』, 『전환기 무용문화의 시대적 의미』 등이 있다.

RE- IMAGINING THE CITY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x Royal College of Art

성남문화재단 x 왕립예술대학

워크숍 WORKSHOP
2024. 7. 1 MON - 7. 5 FRI

전 시 EXHIBITION
2024. 7. 8 MON - 8. 4 SUN
OPENING 2024. 7. 8 MON 2:00PM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SEONGNAM CUBE ART MUSEUM, SPECIAL EXHIBITION GALLERY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미리보기 1

성남작가조명전 3 <이계진: 우연한 삶>

미리보기 2

2024 발레스타즈

미리보기 3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 1-11

미리보기 4

마티네 콘서트 6월, 7월

지휘자와의 대화

이병욱·최희준·이승원·홍석원

인사이드

지휘 콩쿠르 깊이 보기

V I E W

PRE
VIEW

성남작가조명전 3 <이계진: 우연한 삶>

‘우연’이 빚어낸 풍경

글 조한별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2024년 성남큐브미술관은 성남작가조명전의 세 번째 전시로 <이계진: 우연한 삶>을 개최한다. 성남작가조명전은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성남청년작가전과 성남중진작가전을 통합 및 개편하여 지역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우수 작가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참여 작가 이계진은 성남에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작가들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진행한 <2023 성남의 발견> 공모 선정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위주의 <소금산수> 시리즈를 선보인다.

⇐ 이계진, 소금산수 145, 2024, 장지 위 먹과 소금, 125x50cm
⇒ 이계진, 소금산수 154, 2024, 장지 위 먹과 소금, 162x130cm

성남작가조명전 3 <이계진: 우연한 삶>

일시 | 6월 28일(금)~8월 18일(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 031-783-8142~9



이계진 작가는 소금과 먹을 주된 재료로 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160여 점의 <소금산수> 시리즈를 제작해 왔다. <소금산수>는 실제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작품의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 스스로 고민 끝에 창작한 단어다. 작가는 작품 안에서 추상적 요소인 먹과 소금, 구체성을 띤 현대 인물들의 조화로운 구성을 추구한다.

우연의 기법

이계진 작가는 ‘우연’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차용하여 작품을 만든다. 장지 위에 먹을 뿌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린 뒤 대략 한 시간을 기다리면 소금이 먹의 물기를 흡수하면서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독특한 무늬와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효과를 통해 나타난 자연스럽고 독특한 미감은 작품에 생동감과 생명력을 부여한다. 우연의 결과물 위에 실루엣의 형태로 존재하는 점경 인물들은 작가가 실제로 일상에서 마주한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계진 작가는 우연적 요소를 이용하여 무의식

에 내재된 작가 개인의 이야기와 작가가 포착한 우연한 장면들을 작품화한다. 우연적 기법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 작가는 작업 과정에서 우연성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작품의 일부로 통합시킨다.

동양미술에서 우연성은 기교나 인위적 조작 없이 무위 자연의 차원에서 우연히 떠오른 흥취를 나타낸 것을 뜻한다. 예로부터 전통 문인화에서는 화가의 자유로운 심상적 표현을 최고의 경지로 보아 ‘묵회(墨戲)’를 강조한다. 먹을 갖고 논다는 뜻의 ‘묵회’에 기반한 문인화 작품에서 화가는 기술에 구애되지 않는 운필을 통해 형태의 담음보다 내용이나 정신을 강조하며, 형상적 결과보다 과정을 즐긴다. - 이계진, 작가 노트 중에서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먹과 소금처럼, 우리의 삶 그리고 존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연 그 자체인지 모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갈래로 춤추듯 흩어지는 선들은 작가의 손끝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삶 또한 어떤 손길들이 닿아 지금의 존재와 삶을 그려 내었는지 자문해 본다.

<이계진: 우연한 삶>을 통해 평소 지나치기 쉬운 찰나의 순간, 우연한 마주침,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주목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의 재해석 속에서 삶 곳곳에 자리한 우연의 의미를 느껴 보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우연들로 채워져 있나요?’

PRE
VIEW

2024 발레스타즈

세상의 모든 발레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동시대 발레 스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갈라 공연 <2024 발레스타즈>가 7월 13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른다. 고전부터 현대까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발레 스타들이 선보이는 주요 발레의 대표 명장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020년부터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발레스타즈>는 매해 관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사랑받는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1세대 스타 발레리노 김용걸이 예술감독을 맡아, 국내 발레단을 대표하는 라이징 스타 그리고 해외 주요 발레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발레의 저력을 널리 알린 무용수들이 발레 대표작들의 명장면을 선보인다. 클래식 발레의 명작 <호두까기 인형> <빈사의 백조>, 낭만 발레의 정수 <지젤>과 <라 실피드>, 드라마 발레의 걸작 <로미오와 줄리엣>, 컨템퍼러리 발레까지 다채로운 춤의 향연이 2부에 걸쳐 펼쳐진다.

1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발레단의 신예 이윤주와 전민철이 <호두까기 인형> 2막 중 그랑 파드되(김용걸 재안무)를, 파리오페라발레단 준단원 이예은과 이준수가 <라 실피드> 2막 파드되를 선보인다. K-Arts 발레단 이강원이 보

여 주는 우크라이나 민속춤에 기반한 에너지 넘치는 남성 솔로 <Gopak>, 김용걸댄스시어터 단원 최목린과 임재운의 한국적인 전통미로 가득한 <風>(김용걸 안무)에 이어, 노르웨이 국립발레단 단원 고영서와 수석 무용수 리카르도 카스텔라노 Ricardo Castellano의 <지젤> 2막 중 파드되,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주니어컴퍼니 단원 박상원과 2016년



© 최재우



© Ian Whalen

로잔 콩쿠르 우승자인 코리페Coryphée 딩카이 바이 Dingkai Bai가 <해적> 2막 그랑 파드되 무대를 펼친다. 2부에서는 폴란드 국립발레단 퍼스트 솔리스트 정재은과 료타 기타이Ryota Kitai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파드되, 핀란드 국립발레단 종신단원 강혜지와 마틴 누도Martin Nudo의 <Ballet 102>, 박상원과 딩카이 바이의 <Embers>로 이어지는 감각적인 컨템퍼러리 발레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드레스덴 젬퍼오퍼 발레단을 거쳐 영국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이상은의 <빈사의 백조The Dying Swan>, K-Arts 발레단 김조흔과 김용걸댄스시어터 단원 이승현이 연인들의 다양한 감정을 창작 2인무로 표현하는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김용걸 안무)까지, 발레

의 다채로운 스펙트럼과 무용수들의 명품 연기를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국립발레단 음악감독으로 누구보다도 발레 음악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지휘자 김종욱과 디토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무대에 빛을 더하는 또 다른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발레스타즈> 중 광화경 & 리양 시후아이의 <라 실피드> 무대
습 이상은, <빈사의 백조>

2024 발레스타즈

일시 | 7월 13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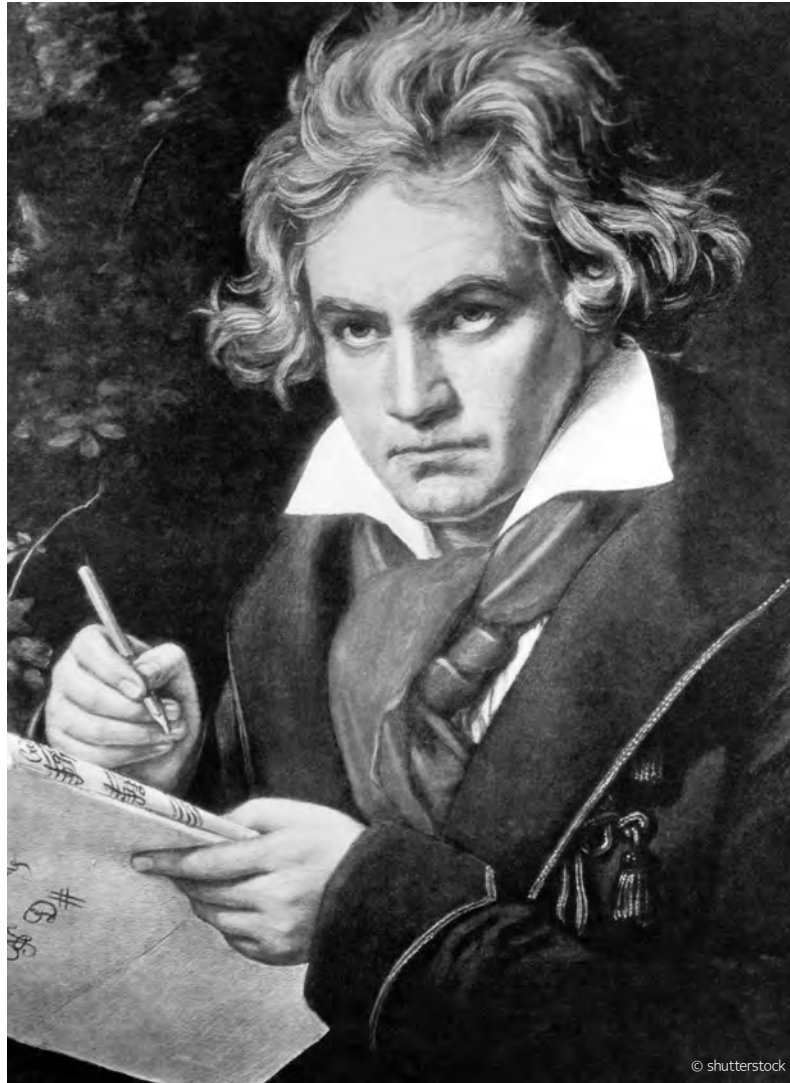
문의 | 031-783-8000

PRE
VIEW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 1·II

모두를 위한 베토벤

글 양창섭 음악 칼럼니스트



© shutterstock

2022년 개관 이후 꾸준히 다채로운 기획의 클래식 무대를 선보여 온 성남아트리움. 2023년부터는 '작곡가 시리즈'라는 테마 아래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 등 클래식의 대표 작곡가들을 집중 조명하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는데,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명곡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는 것은 공공 공연장의 소임이라 하겠다. 올해의 '작곡가 시리즈'는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자이자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이기도 한 베토벤을 주제로 애호가들의 귀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6월: 가장 위대한 5번

6월 26일 첫 공연에서는 영웅적이고 웅장하며 기품 넘치는 악상의 걸작을 산출했던 중기의 전형을 보여 주는 두 작품이 연주된다. 우선 교향곡의 대명사와도 같은 베토벤 5번 교향곡, 이른바 '운명'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 베토벤의 제자인 안톤 쇠데르가 베토벤이 유명한 첫 부분을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고 설명했다고 함으로써 이 부제가 붙었지만, 요즘에는 여러 논란으로 잘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음악을 듣다 보면 '운명'이라는 부제도 충분히 설득력 있음을 알게 된다. 베토벤은 친구에게 난청을 비롯한 여러 고난에도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나는 운명의 묵을 꺾으려하겠어. 녀석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나를 완전히 짓밟고야 말 테니까." 음악학자 루이스 록우드는 이 교향곡이 "자신의 연약함,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에 저항하는 베토벤의 몸짓을 청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5번 교향곡은 이른바 "고난을 넘어 승리의 환희"라는, 베토벤에서 말러에 이르는 교향곡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듣는 이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 준다. 유

명한 1악장은 강렬한 리듬으로 시작해 촘촘하게 짜인 리듬과 음표를 거쳐 갑자기 우리를 덮친다. 3악장부터 서서히 에너지를 쌓아 가던 오케스트라는 팀파니가 긴장을 조성하다 현악기가 점점 커지며 곧바로 이어지는 4악장에서 모든 것을 터뜨린다. 그동안 쉬고 있던 악기들도 모두 합세하며 거대한 강물이 되고 폭포가 되는데, 사실 4악장의 반 정도는 클라이맥스나 다름없을 정도다.

이날의 협주곡 역시 5번 교향곡에 못지않게 유명한 작품,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다. 걸작의 숲이라고 하는 베토벤 중기 작품 중 하나로, 비록 작곡가의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황제'라는 부제가 손색이 없는 당당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뉴욕 카네기홀이 집계한 자체 통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피아노 협주곡 1위로 꼽힌 것은 이 곡의 인기를 증명하는 한 사례다.

4번 협주곡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훨씬 화려하게 피아노가 서막을 열어젖히는데 이는 카덴차 성격이고, 오케스트라가 주제를 한참 동안 풀어나고 나서야 다시 피아노가 등장한다. 처음부터 독주 악기가 '황제'에 어울리는 당당함을 보여 주진 않지만 점차 오케스트라에 동화되면서 성장

해 나가는 듯하다. 단순한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만한 2악장을 지나 역시 아타카(attacca)로 3악장에 이어지면 다시 치열하고 웅장한 악상이 펼쳐진다. 이런 상반된 정조의 음악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작곡가가 베토벤임을 느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이날 공연의 지휘자는 인천시향의 예술감독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병욱이다. 고전과 현대, 교향곡과 오페라를 가리지 않는 팔방미인이지만 기본적인 배경은 당연히 독일-오스트리아 음악

으로, 최근에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피날레 공연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지휘해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클래식 중의 클래식 연주를 맡아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황제'를 협연할 피아니스트 이혁은 롱티보 크레스팽 콩쿠르 우승, 하마마츠 콩쿠르 3위 등에 입상한 만 24세의 차세대 피아니스트다.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견고한 해석과 또렷한 터치는 그의 '황제'에도 기대를 품게 만든다.

6월 : 작곡가 시리즈 I

지휘자 이병욱, 피아니스트 이혁



7월: 걸작의 연주는 계속되다

7월 27일 두 번째 공연에서도 첫 공연에 버금가는 걸작들을 들을 수 있다. 메인 레퍼토리인 베토벤 교향곡 7번은 5번과 기본적인 성격은 비슷하지만 5번처럼 심각하기보다 축제다운 느낌이 물씬하다. 1악장부터 바그너가 '춤의 신격화'라고 했다는 4악장까지 리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화려한 1악장이나 4악장은 베토벤의 다른 멋진 악장을 능가하며, 2악장 알레그레토는 적은 음표로 가슴 벅찬 몽클함이 느껴지는 멋진 사례다. 감동과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명곡이다.

이 작품의 인기는 5번 교향곡 못지않는데, 이는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 등에서 이 곡의 여러 대목들이 사용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가령 1악장은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의 오프닝 음악이었고 2악장은 영화 <킹스 스피치>, 4악장은 영화



7월: 작곡가 시리즈 II

지휘자 최희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다즐링 주식회사>에서 사용되었다.

이날 공연에서 7번 교향곡에 앞서 연주될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역시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장르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니, 맨 윗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할 만한 명곡이다. 기교와 정서라는 측면에서 바이올린이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4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기교와 음악성을 뒷받침할 스태미나 역시 요구된다. 오케스트라 역시 때로는 투티로 당당하게 베토벤의 웅혼한 이상을, 때로는 목관을 앞세워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협주곡 역사에서 오케스트라가 독주 악기의 반주가 아니라 분명한 역할을 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은 (모차르트를 거쳐) 베토벤에 이르러서다.

7월 공연 지휘는 2019년부터 수원시향을 이끌고 있는 최희준 예술감독이 맡는다. 독일 유학파답게 독일-오스트리아 레퍼토리를 기본으로 해서 러시아 음악 등 모든 음악에서 언제나 믿을 수 있

는 연주를 들려주는 최희준 지휘자이기에 더욱 기대된다. 또한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많은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연주자 한수진이 바이올린 협연자로 나선다. "비범한 테크닉과 다양한 표현력으로 진정성 있는 음악을 풀어낸다"(기돈 크레머)는 평가를 받은 그녀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모두 인정하는 난곡이자 대곡을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고, 카덴차 역시 궁금해진다.

두 번의 연주회 모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아 우리에게 명곡들을 들려준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연주 경험을 바탕으로 다비트 라일란트 음악감독 취임 이후 더욱 성숙한 사운드를 가꿔 나가고 있는 국립심포니의 베토벤을 기대해 본다.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I·II

일시 | 6월 26일(수) 오후 7시 30분, 7월 27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 031-783-8000

PRE
VIEW

마티네 콘서트 6월·7월

보헤미아의 숲을 거닐다

글 황진규 음악 칼럼니스트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하는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는 ‘보헤미아의 숲과 들’이라는 주제 아래 체코 음악의 다양한 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6월 공연에서는 ‘드보르자크, 프라하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안토닌 드보르자크가 미국에 건너가기 직전에 썼던 작품들을 연주하며, 7월 공연은 ‘나는 세상에서 잊히고’라는 주제로 체코 출신의 오스트리아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체코 국민악파의 거인 레오시 야나체크의 작품을 다룬다.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하는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총 열 차례 관객을 만나게 된다. 마티네 콘서트는 2021년부터는 유럽 주요 국가의 음악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프랑스, 2022년에는 영국, 2023년에는 이탈리아가 대상이었고 올해는 체코이다. 3월 공연에서는 ‘보헤미아의 숲과 들’이라는 주제(이는 올해 전체 공연을 아우르는 표제이기도 하다)로 체코 국민악파의 시조인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음악을 다루었고, 4월 공연에서는 ‘프라하의 모차르트’라는 주제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체코 프라하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조명했다. 5월 공연에서는 ‘바로크를 빛낸 보헤미아 음악가들’이라는 주제로 비버, 라이헨나우어, 젤렌카 등 체코 출신 바로크 작곡가들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쯤에서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체코 작곡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음악은 대체 언제쯤 소개할 것인가? 양해하시라, 잔치에서도 가장 좋은 술을 제일 먼저 내놓지는 않는 법이다. 하지만 너무 질질 끌어 기다리다 지치게 만

들어도 좋을 리는 없을 터, 바로 이번 6월 마티네는 이 작곡가의 음악만으로 채우게 된다.

6월: 우리가 기다린 드보르자크

6월 20일에 열릴 공연의 주제는 ‘드보르자크, 프라하에서 세계로’이다. 안토닌 드보르자크는 1892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내셔널 음악원(실제로는 국립이 아니었다)의 원장직을 제안받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체류는 3년간 이어졌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의 작품 세계가 크게 변화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드보르자크는 이전부터 이미 원숙한 경지에 올라 있었으며, 이는 6월 마티네 콘서트에서 연주할 곡들의 면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행을 결단하기 훨씬 전인 1882년에 최종 완성한 바이올린 협주곡부터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악상을 들려주며, 1889년에 완성한 교향곡 8번은 미국행으로 인해 국제주의자로 변모하기 이전 체코의 국민 작곡가로서 정점을 알리는 작품이다. 한편 도미 직전인 1891년에 쓴 ‘카니발 서곡’은 화려하고 대담한 악상과 뛰어난 관현악법을 보여 준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비올리스트 겸 지휘자 이승원이 연주를 맡는다. 이승원은 루마니아 BMI 국제 지휘 콩쿠르 및 대만 타이페이 국제 지휘 콩쿠르, 지난 4월 말코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으며, 2022/23년 시즌에 미국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에 임명된 데 이어 2023/24년 시즌에는 같은 악단의 수석부지휘자로 지위가 올라갔다. 협연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은 카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바 있는 재원으로, 2017년 4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베를린 슈타츠헨펠레에 입단한 데 이어 2018년에는 만장일치로 악단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 여성 출신 중신 악장이 되었다. 대담하고 개성적인 연주로 이름난 이지윤이 드보르자크 협주곡에서는 어떤 해석을 들려줄지 기대된다.

7월: 마티네만이 가능한 선곡, 말러와 야나체크

4월 공연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올해 마티네 콘서트의 주제가 체코 음악이기는 해도 이것 이 꼭 체코인 작곡가들의 작품만을 다룬다는 의미는 아니다. 7월 18일에 열릴 마티네 콘서트에서 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 공연의 주제인 '나는 세상에서 잊히고'는 후기 낭만주의 음악 을 대표하는 거인 구스타프 말러가 쓴 <뤼케르 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 중 첫 번째 곡 제목이기도 하다. 오늘날 말러는 유대계 오스트리아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태어난 곳은 칼리시테, 유

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곳은 이흘라바로 둘 다 오늘날에는 체코 땅이다. 그런가 하면 프라하에서 자신의 교향곡 7번을 초연하는 등 체코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체코 음악가들 역시 이런 인연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7월 마티네 콘서트의 전반부는 말러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외 토 악장으로 시작한다. 이 악장은 말러가 아내 알마에게 바치는 연애 편지로 쓴 곡이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화감독 중 하나인 루키노 비스콘티가 토마스 만(말러의 지인이었다)의 소설을 각색해 만든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사용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다음으로 연주할 곡은 앞서 언급한 <뤼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이다. 이 작품은 말러가 교향곡 5번과 병행해 쓴 가곡으로, 작곡가 특유의 세련된 관현악법과 낭만적인 악상이 결합한 수작이다. 한국 출신 메조소프라노로서는 처음으로 빈 국립 오페라에 데뷔한 바 있는 양송미가 노래를 맡는다.

7월 마티네 콘서트의 후반부에서는 드보르자크에 이어 체코 국민음악을 이끌어 간 레오시 야나체크의 대작 교향시 <타라스 불바>가 연주된다. 독일 철학자이며 작곡도 한 바 있는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말러를 높이 평가하면서 제2빈악파 이외 거의 모든 현대 작곡가를 폄하했던 바 있는데, 그가 '놀랍도록 독창적'이라면서 유일하게 칭송한 작곡가가 바로 야나체크였다. 이 작곡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해당 콘서트의 주제와 정반대의 삶을 산 인물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에는 무명으로 지내다가 환갑을 넘어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창성과 창작력으로 걸작을 연이어 쏟아냈기 때문이다. <타라스 불바>는 그의 관현악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작품으로,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동명 장편 소설에 기초한 3악장의 작품이다. 명칭 자체는 랩소디(광시곡)이지만 뚜렷한 줄거리를 지니고 있어 보통 교향시로 분류한다. 타라스 불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살았던 자포로제 코자크인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으로, 야나체크는 작품에 착수한 시점인 1915년에는 체코 민족의 독립을 마음에 품은 채 이 곡을 썼지만 곡을 완성한 1918년에 조국이 염원하던 독립을 이뤘기 때문에 결국 이 곡은 새로 독립한 조국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연주되는 일이 극히 드문 작품으로, 이번 공연은 이 작품과 야나체크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아울러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휘를 맡을 홍석원은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서 2년에 걸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오페라 극장에서 수석 카펠마이스터(음악 총괄)를 5년간 역임했으며, 독일음악협회가 선정하는 '미래의 마에스트로'에 뽑힌 바 있다. 또 카라얀 탄생 100주년 기념 지휘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오페라부터 발레, 심포니, 현대음악까지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지휘자로 평가

6월: 드보르자크를 만나다

지휘자 이승원,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7월: 말러와 야나체크

지휘자 홍석원,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받고 있다. 최근에는 2024년 교향악축제에서 광주시향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3번을 지휘해 강렬한 해석으로 호평받기도 했다. 7월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말러와 야나체크라는 전혀 다른 개성을 지닌 두 작곡가를 한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해 낼지 주목된다. 연주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맡을 예정이다.

마티네 콘서트 6월·7월

일시 | 6월 20일, 7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0

이병욱·최희준·이승원·홍석원

하나의 소리를 위한 여정

6월과 7월, 현재 음악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는 네 명의 지휘자가 차례로 성남을 찾는다. 우선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에서는 이병욱^{6월 27일}과 최희준^{7월 27일}이 온전히 베토벤으로만 꾸며진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선다. 최근 말코 국제 콩쿠르 우승과 함께 세계 무대로 비상하는 이승원^{6월 20일}, 장르를 넘나들며 '믿고 듣는 음악'을 선사하는 홍석원^{7월 18일}의 마티네 콘서트도 흔치 않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놓쳐서는 안 될 순서다. 베토벤에 대한 탐구와 콩쿠르 뒷이야기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까지, 공연을 앞두고 4인의 마에스트로와 나눈 이야기를 차례로 전한다.



1

지휘자

이병욱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올라운더 마에스트로.’ 지휘자 이병욱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또 교향곡과 오페라, 발레,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청중의 신뢰를 받는 이병욱이 6월 26일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으로 관객을 만난다. 피아니스트 이혁,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의 가장 위대한 5번을 들려줄 이병욱의 베토벤 이야기.

이번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베토벤이 남긴 걸작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협주곡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교향곡이 한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공연이 아닌가 합니다. 의외로 이 두 곡이 함께 연주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너무 익히 잘 아시는 작품이라 조금은 부담도 있지만, 저 역시 이번 프로그램에 기대가 큼니다.

지휘자에게 베토벤과 그의 교향곡은 베토벤의 교향곡은 결국 모든 지휘자에게 '숙제 같은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반드시 잘 연주해야 하고, 누군가와 닮아서도 안 되죠. 세상에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해석과 연주 속에 나의 해석은 어떤지, 오케스트라의 해석은 어떤지, 항상 고민하게 되고 연주할 때마다 어려운 존재입니다. 베토벤은 인간적으로도, 또 음악적으로도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좌절할 상황을 이겨내고 작품 활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경이롭죠.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불편할 장애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이겨내며 창작을 이어 갔다는 자체가 놀랍잖아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후대에 '이것이 교향곡이다'라고 확고하게 전해 준 작곡가죠. 초등학교 처음 학교에 입학해 당연히 덧셈, 곱셈을 배우듯이 지휘자들에게도 베토벤 교향곡 전곡은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너무나 사랑하고 친숙하면서도 두렵기도 한 그런 음악입니다.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 교향곡은 보통 홀수 번호를 선호하는데 - 물론 저도 홀수 교향곡은 당연히 좋아합니다만 - 짝수 교향곡도 참 좋아해요. 최근에 4번, 6번, 2번을 자주 연주하기도 했고요. 짝수 번호들이 갖고 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때론 익살적인 면을 좋아합니다. 삼중 협주곡과 피아노 협주곡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피아노 협주곡은 2018년 백혜선 선생님과 협주곡 전곡 시리즈, 지난 연말 피아니스트 박재홍/인

천시향과 하루에 협주곡 전곡을 연주하는 '콘체르토 마라톤' 시리즈를 진행한 적이 있어서 더욱 정이 가는 작품들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중 기억에 남는 연주 베토벤 교향곡의 명반은 정말 무수히 많죠. 그래도 애호가들에게 바이블과 같은 존재로 꼽히는 카를로스 클라이버와 빈 필하모닉의 음반은 언제 듣더라도 좋은 음반입니다. 카라얀의 후기 음반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자신이 창단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와 연주한 베토벤도 좋죠. 더블링의 풍부한 사운드도 좋지만, 오케스트라 모차르트나 도이치카머필하모닉처럼 소규모 편성이 주는 가볍고 째한 스타일, 활을 가볍게 쓰고 강약의 대비가 많은, 현대 악기지만 예스럽게 연주하는 스타일도 매력적입니다.

지휘자로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인성, 지휘 역량 등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우선은 성실과 겸손이 아닌가 해요. 음악 앞에 겸손하고, 내 앞에 마주한 연주자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죠. 기악 연주자가 악기를 소중히 대하듯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실히 연습하고 관리해야 악기가 좋은 소리를 들려주듯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지휘자가 충실하게 악보를 연구하고 준비한 음악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100% 온전히 청중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 구상과 실제 연주 사이의 간극을 조금씩 줄여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현 국립심포니)와 전주시향 상임지휘자를 거쳐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최희준은 음악에 대한 완벽주의, 진지한 학구열로 언제나 돋보이는 음악적 성취를 이뤄 왔다. 7월 27일 성남 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의 두 번째 순서로 무대에 서는 최희준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그리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교향곡 7번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베토벤 작품으로만 구성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관객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베토벤이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이 곡은 솔로 부분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튜트 부분까지도 장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 마치 교향곡에 솔로 바이올린이 더해진 듯한 느낌이지요. 2부에 들게 될 교향곡 7번은 열광적인 리듬과 에너지 넘치는 사운드를 기반으로 흥분되고 들뜨는 분위기를 충실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되는 2악장에서는 다소 침착하고 우울한 선율이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휘자에게 베토벤과 그의 교향곡은 지휘자에게 베토벤 교향곡은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필수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그의 교향곡을 통해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 그리고 음악의 진정성을 배울 수 있죠. 베토벤은 고전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작품에서는 그만의 대담한 혁신과 독창성, 또 강렬한 표현력과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향곡은 매우 논리적이고 구조적이어서 마치 튼튼하고 멋진 건축물을 보는 듯해요. 곡에 깃든 단단한 사운드는 오케스트라의 장점을 살리며 다채로운 변화 속에 깊은 감동을 전해 줍니다.

특히 애착이 가는 작품 베토벤의 수많은 걸작 중에서도 교향곡 7번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제가 직접 지휘할 때는 물론이고 관객으로 객석에서 들을 때에도 큰 감동을 주는 곡이죠. 이 곡에서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작품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 있어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악장들과 대비를 이루는 2악장도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장송 행진곡처럼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하는데 베토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지요.

베토벤 교향곡 중 기억에 남는 연주 너무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음반이 많다 보니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질문 중 '기억에 남는 연주'라는 이야기에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곡가는 죽어서 작품을 남기지만, 과연 연주자와 지휘자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음반을 남기기도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연주를 남기기도 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연주는 후대에도 계속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7월 27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와 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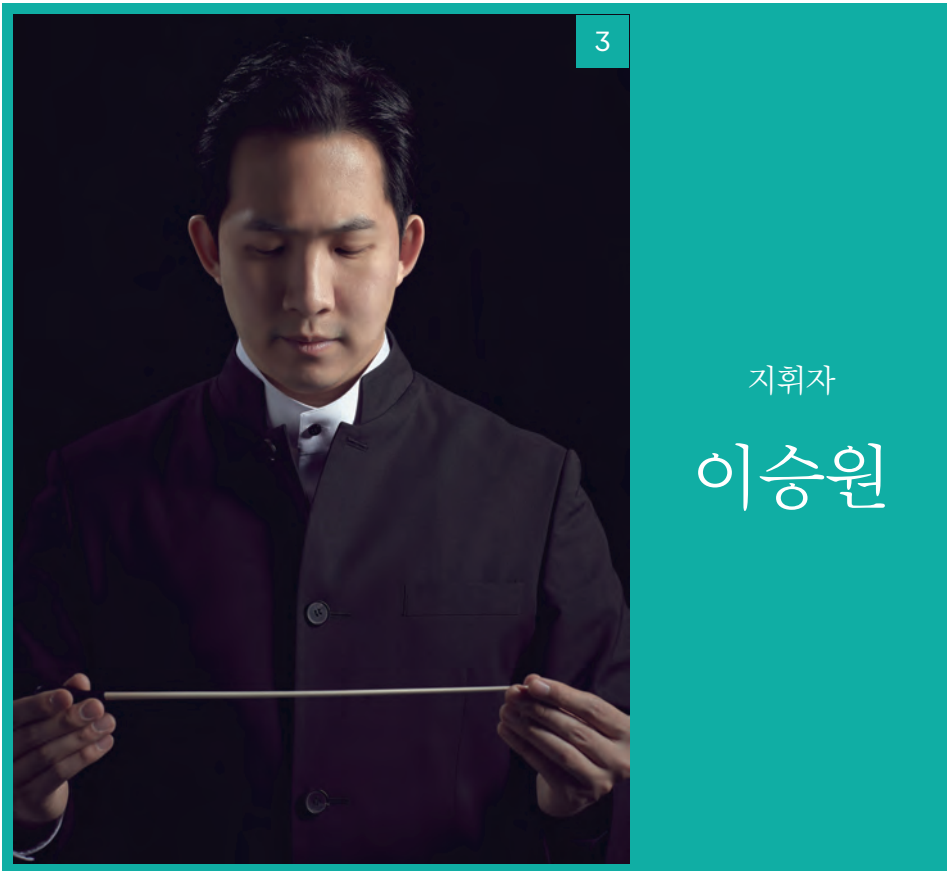
지휘자

최희준

께하는 이 연주가 큰 감동의 울림으로 청중에게 다가가기 바랍니다.

지휘자로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지휘자란 음악적인 부분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어로 지휘자를 '음악감독Musikalische Leitung'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오케스트라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연주를 위한 리허설 과정은 대표적인 소통의 시간이지요. 지휘자는 단원들을 음악적으로 설득하고 제언하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 갑니다. 충분한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리허설이야말로 성공적인 연주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베토벤의 음악을 가지고 좋은 소통의 시간, 감동의 시간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3

지휘자 이승원

지난 4월, 덴마크 니콜라이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지휘자 이승원이 6월 마티네 콘서트 무대에 선다. 국내 간판 현악 4중주단인 노부스 콰르텟 전 멤버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던 이승원은 2018년 지휘자로 본격 전향하며 차세대 지휘자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신시내티 오케스트라 수석부지휘자로 활동하시면서도 콩쿠르에 출전하셨는데요.**

주요 콩쿠르의 나이 제한이 35세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해외 연주 기회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 보니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객원지휘 기회가 절실하죠. 특히 말코 콩쿠르는 주요 지휘 콩쿠르 중에서도 횡수와 내용 모두 압도적입니다. 타 콩쿠르의 경우 개최 국내 악단 지휘가 대부분인데, 말코는 무려 전

세계 24개 오케스트라 지휘 기회가 주어져요. 오슬로 필하모닉, 댈러스 필하모닉,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등 객원지휘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메이저 오케스트라가 가득하죠. 또 단시간 동안 많은 곡을 준비하는 콩쿠르 특성상, 참가 자체로 레퍼토리 확장과 음악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콩쿠르 경연곡은 후보곡들 중 당일 제비뽑기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파이널까지 총 4차 과정이었어요. 1차에서는 하이든·모차르트·베토벤 중 연주 1시간 전 제비뽑기를 거쳐 17분의 리허설을 진행했고, 2차는 교향곡 세 곡 전 악장을 준비한 뒤 두 곡을 연주했죠. 저는 말러 5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90%를 집중했는데, 막상 제 연주곡은 드보르자크와 차이콥스키였어요. 3차는 오전 세션에서 라벨과 드뷔시, 버르토크를 리허설 없이 관객 앞에서 공연했고, 오후에는 역시 사전 리허설 없이 닐센의 플루트 협주곡을 연주했어요. 악단 역시 여러 참가자들과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젊은 지휘자들에게 협조적인 태도로 진지하게 집중해 준 덕분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비올라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후 지휘 전공으로 다시 학부 과정을 수학하셨어요. 여기에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비

“악단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음악을 만드는 ‘소통의 힘’은 지휘자에게 꼭 필요한 변함없는 가치입니다”

올라 종신교수직을 내려놓고 신시내티 오케스트라로 가신 것까지, 모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고민은 없었어요.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마친 뒤 석사로 지휘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기 위주로 압축된 2년 커리큘럼이 제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학부에서 지휘 기본기와 테크닉은 물론 오페라 코치, 오페라 피아노 반주, 이탈리아어, 발성 수업 등 지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음악적 소양과 지식을 쌓아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를 마친 뒤 석사 과정부터 조금씩 작은 지휘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당시 노부스 콰르텟도 세계 무대 일정이 많다 보니 활동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병행이 욕심임을 깨닫고 멤버들과 상의 후 지휘로 전향하게 됐죠.

종신교수 대신 계약직 부지휘자를 선택한 것도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비올라를 사랑하지만, 지휘 커리어를 위해 프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경력은 필수라고 판단했거든요. 오랫동안 살던

독일에서 기회가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독일은 해당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고 오디션도 없어서, 온라인 공채 오디션 공고들을 살펴보다 신시내티에 지원하게 됐죠. 세계 미국은 완전히 낯선 세상이었지만, 13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스토크프스키부터 길레과 예르비까지 무수한 거장들이 거쳐 간 이곳이야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마티네 콘서트는 드보르자크만으로 꾸민 프로그램입니다. 또 바이올린 협주곡은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은 아닌데요.

매해 하나의 국가 혹은 작곡가를 집중 조명하는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의 기획을 참 좋아해요. 영국을 주제로 했던 2022년 첼리스트 한재민 씨와 엘가를 들려 드린 무대, 지난해 11월 경기필과의 레스피기 프로그램도 좋았어요. 이런 기획 덕분에 저도 작곡가에 대해 한층 깊이 알아가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이번 마티네에서도 드보르자크 서곡과 바이올린 협주곡은 처음 지휘하는 작품이라 기대가 큰데요, 특히 이지윤 씨 협연을 고대하고 있어요. 예원학교 후배에다 독일 한스아이슬러 음대 동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초보 지휘자로 학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던 시절에 바이올린 박사 과정이던 지윤 씨를 악장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꽤나 영성해보이지 않았을까 싶네요(웃음). 8년 만의 만남인데다 지휘자-협연자로는 처음이라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지휘자로서 꼭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리더십과 카리스마는 변함없이 필요한 덕목입니다. 백여 명 단원을 집중시키고 음악적 아이디어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단원 모두 프로 음악가의 인생을 살아왔고 곡에 대한 견해도 각기 다를 텐데, 통합된 하나의 소리를 위해서는 지휘자의 카리스마가 필수입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그 옛날 카라얀 시절의 압도적인 아우라, 때로는 독재적이었던 느낌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는 '소통의 힘'이 필요해요. 아무리 완벽히 준비된 지휘자라 해도, 결국 실제로 그 음악을 연주하고 소리를 만드는 것은 오케스트라이니까요.

콩쿠르 이후 변화를 실감하시나요?

해외 활동 루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동양인 지휘자로서는 결국 콩쿠르가 유일한 통로인 셈이거든요. 입상 이후 해외 활동 관련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콩쿠르 부상으로 주어진 오케스트라에서 일정을 묻는 연락은 물론이고, 그동안 꿈꾸던 해외 매니지먼트사들의 제안이 쏟아져 들어와 감사할 뿐입니다. 곧 런던에서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마티네 콘서트 무대에 설 때쯤이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마티네 콘서트에서 곧 뵙겠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유럽 오페라 극장에서 오랫동안 탄탄히 경력을 쌓아 온 홍석원은 현재 국내 음악계에서 관객과 극장 모두에게서 신뢰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광주시향 상임지휘자를 거쳐 7월 부산시향 예술감독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홍석원이 마티네 콘서트에서 함께할 음악 이야기를 미리 들어 본다.

7월 마티네 콘서트에서 말러와 야나체크를 연주하시죠.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야나체크의 <타라스 불바>는 오래전 유럽에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실연을 듣고 좋아하게 된 작품입니다. 당시 '이런 곡도 있구나' 하고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이후 이 곡을 지휘 콩쿠르 과제곡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스위스 베른



지휘자

홍석원

© 황필주

**“자주 연주되지 않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발굴하고,
오페라와 교향곡 작업도
지속하고 싶습니다”**

극장과 인스브루크 극장에서 오페라 <영리한 암여우>와 <미크로폴로스 사건>을 지휘하며 야나체크만의 매력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야나체크는 신기하게도 선대 작곡가들의 영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생전 처음 접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오케스트라에 까다로운 곡이 많고 대중성도 적다 보니 선뜻 메인 프로그램으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지만, 마티네 콘서트 주제가 ‘보헤미아’라면 꼭 들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야나체크 작품을 흔히 만날 수 없다 보니 더 기대가 커요. 1부를 장식하는 말러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연결 고리를 가집니다. 저는 유사한 결보다는 대비를 강조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데요, 말러 교향곡 5번 ‘아다지오토’와 <뤼케르트 가곡>처럼 서정적인 작품으로 꾸며지는 1부, 이보다 더 강렬할 수 없는 2부 <타라스 불바>가 극적인 대비 속 조화를 보여 주리라 기대합니다.

<타라스 불바>는 야나체크의 대표작이지만 일반 관객에게는 아무래도 낯선 작품입니다. 미리 알아 둘 감상 포인트가 있을까요?

러시아 문호 고골의 소설을 기반으로 쓴 이 곡에서 야나체크는 세부적인 장면, 또 인물의 감정을 음악으로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오페라는 아니지만 오페라처럼 연주하게 되는 작품이죠. 원작 내용을 미리 살펴보신다면 음악이 더 와 닿으리라 생각해요.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야나체크 특유의 아주 새롭고 유니크한 사운드로 가득합니다. 보헤미안의 토속적인 색채와 1900년대 초반 근현대 시기가 묘한 조화를 이루죠. 독일, 또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려 노력했던 그만의 독특한 맛이 살아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그 낯선 느낌 자체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말러의 <뤼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은 다양한 남녀 성악가들의 버전으로 사랑받는 곡입니다. 말러에게 가곡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악가의 성별과 무관하게 남성과 여성 어떤 버전을 듣더라도 주옥같은 곡입니다. 말러의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교향곡을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 그가 남긴 교향곡의 대부분이 가곡에서 출발했어요. 가곡은 말러가 가장 진솔하게 자기 생각을 담은 형식이었죠. 말러의 교향곡에서는 그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부분이 조금씩 느껴지는 데 반해, 가곡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낸 점이 더욱 말러답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무대에 여러 번 함께 주셨습니다. 무대에서 체감하시는 성남아트센터 마티네만의 장점이 있나요?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는 ‘좋은 기획에 좋은 관객이 따른다’는 진리를 느낄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프로그램을 대하는 관객 여러분의 진지한 감상 태도와 더불어, 수준 높은 프로그램 속에 관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대에서 실감할 수 있죠. 다른 오전 공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타라스 불바>와 같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진지한 프로그램으로 정통 클래식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해요.

오페라 지휘에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지휘자에게 오페라 지휘의 매력은 무엇인지요?

공동 협업이 필요한 종합 예술이라는 점에서 교향곡과는 다른 매력이 있죠. 음악과 무대, 의상, 미술, 연출, 연기 등 모든 요소들이 맞아떨어질 때의 카타르시스가 대단해요. 교향곡은 저 혼자 악단을 지휘하지만, 오페라는 다른 작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 생각과 견해를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함께 극을 만들고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팀플레이의 매력이 가득하죠.

광주시향을 떠나 부산시향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활동하시게 되는데요.

광주와 함께한 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원들, 또 관객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산시향은 전임 지휘자가 워낙 좋은 활동을 보여 주셔서 부담도 있지만, 부산의 색깔에 저의 색깔을 잘 더해 보겠습니다. 이미 부산의 클래식 수요와 수준은 탁월하지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해야지요. 클래식 관객이 늘어나는 건 제게도 기쁨이니까요.

지휘자로서 꼭 작업하고픈 작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내야 하는 작품들은 무조건 애정을 갖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레퍼토리 확장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 50대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을 해 보고 싶어요. 쇼스타코비치로 꾸며던 지난 4월 교향악축제도 한국에서 거의 공연되지 않는 작품이라 즐겁게 연주했거든요. 자주 연주되지 않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발굴하고, 오페라와 교향곡 작업도 지속하고 싶습니다.

지휘 콩쿠르 깊이 보기

지휘의 세계



지휘자 이승원이 4월 20일 세계적 권위를 지닌 덴마크의 니콜라이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악기나 성악 분야의 콩쿠르에 비해 덜 주목받아 온 지휘 콩쿠르가 음악 팬들의 화제로 떠올랐다. 콩쿠르를 거치지 않은 지휘자들도 많은 것 아닌가? ‘피지컬 테크닉’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악기나 성악에 비해 지휘에서 순위를 가리는 것은 까다롭지 않을까? 유명 지휘 콩쿠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 입상자를 가릴까?

이승원이 우승한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는 덴마크 방송 교향악단 창립에 기여한 러시아 출신 지휘자 니콜라이 말코를 기념하기 위해 1965년 창설된 지휘 콩쿠르다. 현존 유명 지휘 콩쿠르 중에서도 브장송 콩쿠르 다음으로 역사가 오랜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클라우스 페터 플로어¹⁹⁸³, 조슈아 와일러스타인²⁰⁰⁹, 라파엘 파야레²⁰¹² 등의 유명 지휘자를 배출했으며 1998년에는 재일교포인 세이교 김(김성향)이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 2023년에는 윤한결이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우승의 낭보를 전해 왔다. 우리에게 1977년 금난새가 4위를 차지한 ‘카라얀 국제 지휘 콩쿠르’가 낯익지만 이 둘은 다르다. 카라얀 국제 지휘 콩쿠르는 1969년 창설돼 베를린에서 개최됐으며 1989년 카라얀과 베를린 필의 관계가 끊긴 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금난새가 입상한 1977년 대회는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우승했고 폴란드의 야체크 카스프치크가 3위를 차지한 ‘핫한’ 대회였다.

윤한결이 우승한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은 잘츠

부르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다비드 아프캄²⁰¹⁰, 미르가 그라지니테 티라²⁰¹², 로렌초 비오티²⁰¹⁵, 아지즈 쇼하키모프²⁰¹⁶ 등을 우승자로 배출했다. 같은 2023년에는 한국인 이해가 이탈리아 그로세토에서 열린 제2회 쿠세비츠키 콩쿠르에서 2위에 올랐다.

2021년에는 이든이 프랑스의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결승에 올라 특별상을 수상했다. 말코 콩쿠르와 함께 지휘 콩쿠르 중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 콩쿠르는 1951년부터 열리고 있으며 오자와 세이지¹⁹⁵⁹, 즈네덱 마칼¹⁹⁶⁵, 헤수스 로페스코보스¹⁹⁶⁸, 요엘 레비¹⁹⁷⁸, 오스모 벤스케¹⁹⁸², 유타카 사도¹⁹⁸⁹, 리오넬 브링기에²⁰⁰⁵ 등을 수상자로 배출했다. 이든은 2023년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오페라 콩쿠르에서는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2013년 브장송 콩쿠르에서는 윤현진이 결선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윤현진은 2012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주네스 뮤지컬 콩쿠르 2위에 올랐으며 다음 해 포르투갈 젊은 지휘자 콩쿠르에서는 공동 2위에 입상했다.

2017년에는 차용이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개최

하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지휘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올랐다. 이 도시가 낳은 전설적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기리기 위해 1985년부터 개최하는 콩쿠르다.

‘지휘자의 나라’ 핀란드의 전설적 지휘 교수 요르마 파놀라의 이름을 딴 파놀라 지휘 콩쿠르에서는 아드리엘 김이 2009년 3위에 올랐다. 파놀라 콩쿠르는 영국의 도나텔라 플릭 콩쿠르 등과 함께 유럽인에게만 참가 자격을 주고 있지만 아드리엘 김은 오스트리아 국적으로 도전해 결실을 거뒀다.

김은선은 2008년 스페인의 로페스코보스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해 오페라 지휘자로 인정받으며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조력지휘자로 활동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 콩쿠르는 유감스럽게도 2018년 지휘자 헤수스 로페스코보스 타계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프랑크푸르트 게오르크 솔티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성시연은 이듬해인 2007년 구스타프 말러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오르며 국제적 주목을 이어 갔다. 솔티 콩쿠르는 1952~61년 프랑크푸르트 오페라를 이끈 명지휘자 솔티의 업적을 기리는 콩쿠르로 2004년 제임스 개피건, 2017년 발렌틴 우류핀을 우승자로 배출했으며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월슨 응이 2017년 2위에 올랐다. 한편 2004년 창설돼 브장송 콩쿠르나 말코 콩쿠르에 비할 만한 입지를 구축한 말러 콩쿠르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주최한다. 첫째 구스타보 두

다멜을 우승자로 배출했고 옥사나 리니우가 3위에 입상했다. 2013년에는 라하브 샤니가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폴란드를 대표하는 피텔베르크 지휘 콩쿠르에서는 1991년 함신익이 2위에 올랐다. 1979년 창설된 이 대회는 카토비체에서 5년마다 개최되며 1979년 클라우스 페터 플로어, 2012년 마르제나 디아쿰 등의 우승자를 배출했다.

콩쿠르, 지휘자 탄생의 새로운 경로

“콩쿠르는 자신을 알리고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임윤찬이 우승한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 무대를 지휘한 마린 올솜은 이렇게 말했다. 알토 가수 출신으로 지휘자가 된 나탈리 스투츠망은 “콩쿠르는 지휘자로 커 가는 음악가가 자신을 경쟁자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지휘자는 전통적으로 ‘극장에서 성장하는 영역’이었고 지휘 콩쿠르를 통한 발견은 예외적인 코스로 치부됐다. 주로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지휘에 야망이 있는 음악도는 ‘레페티터repetitor’로 지휘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페라나 발레 연습 때 지휘자의 의도에 맞춰 성악진을 미리 연습시키는 직책이다. 여기서 출발해 조력지휘자나 부지휘자를 거친 뒤 작은 극장의 지휘자로 인정받고 차츰 큰 무대로 올라서는 것이 전통적 지휘자의 모델이었다. 19세기 지휘자의 전형인 구스타프 말러와 20세기 후반 지휘계의 게오르크 솔티 등이 이런 수순을 밟았다. 1959년생인



지휘자 이승원의 2024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 현장

‘21세기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도 레페티터로 출발해 지휘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이런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음악 교육의 전문화가 꼽힌다. 각국의 음대와 음악원이 실기 강화를 꾀하며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연주자들을 쏟아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휘자의 구상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로 새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했다. 이론으로 새롭게 무장한 단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휘과’의 도입이 필요했고 이렇게 육성된 지휘자 지망생들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현행 국제 지휘 콩쿠르의 대부분이 21세기 초반에 탄생한 것이 이런 새로운 흐름을 증명한다.

실력이 검증된 새 지휘자들에게 ‘발전된 악기’가 절실한 것도 지휘 콩쿠르가 각광받는 이유다. 자기 악기로 치열하게 연마할 수 있는 연주자와 달리 지휘자의 ‘악기’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이며 그 품질은 천차만별이다. 적절한 성장 단계에서 적절한 악기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지휘자로서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이 때문에 크건 작건 대부분의 지휘 콩쿠르는 입상 특전으로 오케스트라 지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입상 후 특전은 성장의 기회

지휘 콩쿠르에 도전해 현장에 도착한 젊은 지휘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1회나 2회의 예선을 통해 경쟁자가 절

반 또는 그보다 적은 수로 추려진다. 예선에서는 부여된 여러 과제곡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여하는 부분 일부를 단원들과 연습한 뒤 지휘한다. 연주 부분은 추첨을 통해 결정되거나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선택해 요구할 수도 있다. 경쟁자의 숫자가 줄어든 준결선에서는 부여받은 악곡의 길이가 늘어난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콩쿠르의 성격에 따라 협주곡·오페라 등 다양한 성격의 악곡이 부여되면서 협연자와의 호흡도 평가 대상이 된다. 콩쿠르 측이 위촉한 현대 창작곡 악보는 대체로 콩쿠르 중간 단계에서 주어진다. 새로운 흐름의 창작곡에 대한 해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승이나 다른 레코딩의 영향을 배제한 순수한 악곡 탐구 능력을 알 수 있다. 결선에서는 대체로 긴 길이의 교향곡을 포함한 완성된 악곡을 지휘한다. 오케스트라가 긴 시간

동원되는 지휘 콩쿠르 특성상, 대체로 결선에서는 세 명 남짓한 적은 수가 경쟁하게 된다. 이승원이 올해 우승한 말코 콩쿠르에서는 열두 곡의 과제곡이 부여됐다. 이승원은 “일반적인 공연에서는 한 프로그램을 수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이 콩쿠르를 위해서는 12곡을 두 달 동안 공부했다. 악보만으로 캐리어 하나가 찰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콩쿠르의 특징 중 하나로 그는 “리허설 때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착용했다”고 전했다. 리허설 중 단원들과의 소통 방식과 효율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말코 콩쿠르는 입상 이후의 특전으로도 이름이 높다. 오슬로 필하모닉, 댈러스 심포니 등 무려 24곳이나 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기회가 주어진다. 젊은 지휘자의 성장에 필수적인 ‘최고의 악기’를 24개나 시험해 볼 수 있는 셈이다. 1961년 시작된 이탈리아의 기도 칸텔리 콩쿠르



지휘자 이든(오른쪽)은 2021년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했다

는 아직까지 한국인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콩쿠르는 비평가와 음악 기자들이 뽑는 비평가상이 특징이다. 엘리야후 인발, 리카르도 무티, 피세르 아담 등을 우승자로 배출했으며 1980년대 초반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지낸 발터 길레센이 이 대회의 1965년 우승자다. 성시연이 입상한 구스타프 말러 콩쿠르는 이름처럼 말러 교향곡 한 곡이 과제곡으로 주어지지만 전곡을 지휘하지는 않는다. 2023년 경연에서는 말러 교향곡 7번 ‘밤의 노래’가 지정곡이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2악장과 4악장 등의 발췌 부분과 하이든 교향곡 92번, 현대 창작곡 등이 연주됐고 세 명이 경쟁한 결선에서는 지정 협연자가 출연하는 스트라빈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과 말러 교향곡 7번 1악장이 과제로 주어졌다. 브장송 콩쿠르는 3개 대륙 오디션과 예술 에이전시 코칭이라는 특전이 특징이다. 2023년 대회에서는 중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에서 지원자가 두 대의 피아노가 연주하는 교향곡을 지휘하는 예선을 거쳤다. 우승자는 일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메츠 국립 오케스트라 등 15개 오케스트라의 지휘 특전을 제공받는 한편 예술 에이전시 에메 파레의 코칭을 3개월간 받게 된다. 음악 비즈니스에서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데 유리한 특전이다.

윤한결이 우승한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은 우승자가 수상 직후 ORF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콘서트를 특전으로 받으며 잘

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무대를 얻을 기회도 주어진다. 윤한결은 우승자 콘서트에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과 마리아 두에나스가 협연하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다. 차웅이 입상한 토스카니니 콩쿠르는 토스카니니의 이름답게 오페라에 큰 비중이 주어진다. 예선부터 베토벤 교향곡을 비롯한 관현악과 함께 아리아·중창·합창 등 이탈리아 오페라의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소화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로테르담 국제 콩쿠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긴 일정으로 지휘자 지망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5년 대회의 경우 2024년 6월에 준결선을 통해 결선 진출자를 결정하며 이후 1년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25년 6월에 결선이 열린다. 심사위원으로는 카리나 카멜라키스, 안야 빌마이어, 성시연, 막심 벤게로프, 톤 쿠프만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지휘자들이 참여한다. 최종 우승자 외 예선과 준결선 등 각 단계마다의 우승자를 시상하는 것도 이 신생 대회의 특징으로 꼽힌다.

글 **유윤중** 동아일보 문화 전문 기자

1996년부터 동아일보 음악 전문 기자로 일했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SPO> 편집장과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무국장을 지냈다. 『푸치니』 『클래식, 비밀과 거짓말』 등의 책을 썼다. 낭만주의 음악의 완숙기로 불리는 19세기 중반 이후의 대편성 관현악과 성악 음악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20
2004-2024

성남문화재단

헤아 보듬이 숲의 과금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 2024년 3월~12월(총10회)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6월 20일 (목) 11시
● 드보르자크, 프라하에서 세계로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이승원, 바이올린 이지윤

드보르자크, 카니발 서곡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 G장조

7월 18일 (목) 11시
● 나는 세상에서 잊히고 ●

경기필하모닉, 지휘 홍석원,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도
말러, 루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
야나체크, <타라스 불바>

BOOK

영상의 원작을 만나다

이럴 땐 이런 앱

크리에이터 정구호

시네마 클래식

영화 <오펜하이머>와 스트라빈스키

트렌드 1

리퀴드폴리탄과 워케이션

트렌드 2

책, 트렌드가 되다

생활 속 디자인

집이 은유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C
U
L
T
U
R
E
+

이 한 권의 책 영상의 원작을 만나다

글 이호재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문화부에서 문학, 출판,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콘텐츠라 믿는다.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는 슈퍼 지식재산권^{IP}의 시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상 작품이 여럿 쏟아지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감명받았다면 원작을 읽으며 음미해 보는 건 어떨까. 최근 화제가 된 영상 작품의 원작을 소개한다.

둔 신장판^{전 6권}

'둔친자(둔에 미친 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국내 관객 150만 명을 동원한 영화 <둔 파트 2>를 봤다면 미국 작가 프랭크 허버트가 1965년부터 펴

낸 원작을 읽어 보는 걸 추천한다. 원작은 6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 영화가 미처 담지 못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원작에서 환각 물질인 스파이스에 노출된 주인공 폴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확신에 차 원수인 하코넨 가문에 복수를 시작하는 장면이 압도적으로 서술된다. 두려움 없이 전쟁을 이끌며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폴의 속마음도 원작엔 깊게 담겼다. 원작을 읽다 보면 그릇된 '영웅주의'가 인류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삼체^{전 3권}

넷플릭스 세계 1위(TV 부문, 플릭스패트를 기준)에 오른 드라마 <삼체>의 원작은 중국 작가 류츠신이 2013년부터 쓴 작품이다. SF계의 노벨 문학상으로 통하는 휴고상을 받고 900만 부 이상 팔렸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원작에서 중국 문화대혁명¹⁹⁶⁶⁻⁷⁶의 비극에 대한 묘

사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류츠신은 문화대혁명으로 살해된 한 지식인의 모습을 묘사하며 "핏줄기만이 유일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붉은 뱀처럼 천천히 구불구불 기어가다 단상 끝에서 한 방울씩 아래에 있는 빈 상자 위로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고 썼다. 광기에 사로잡힌 믿음이 불러온 끔찍함을 처절하게 그렸다는 점은 크게 인정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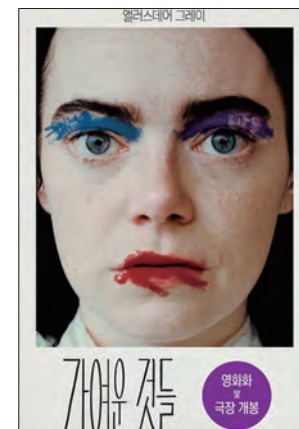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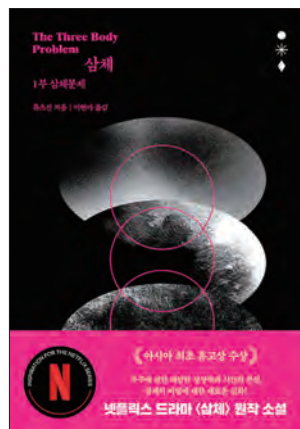
가여운 것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가여운 것들>을 봤다면 스코틀랜드 작가 앨리스데어 그레이가 1992년에 쓴 원작에 눈길이 갈 터다. 사망한 성인 여성의 몸에 태아의 두뇌를 결합해 탄생시킨 피조물 '벨라'라는 파격적 소재는 영화와 원작 모두 동일하다. 다만 원작에는 여성을 억압하는 시대상이 강렬하게 담겼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해 여성에 대한 시선이 보수적이었던 시대상

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제국주의 이면의 빈부 격차 역시 신랄하게 풍자한다. "전쟁이 끝난 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게 됐다"는 문장을 읽다 보면 소설만이 지닌 매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동조자

박찬욱 감독이 제작·각본·연출 전 과정을 지휘한 미국 HBO 드라마 <동조자>의 원작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미국에서 스파이로 활동한 북베트남 장교의 이야기를 담았다. "나는 스파이, 고정 간첩, CIA 비밀 요원, 두 얼굴의 남자"라는 원작의 첫 문장은 이중생활을 힘들어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실감 나게 살렸다. 특히 원작은 공산당을 모독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베트남에서 출판되지 못했다. 베트남 출신 미국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이 겪은 미국 사회의 차별을 녹여 2016년 미국 풀리처상을 받은 만큼 작품성이 뛰어나다.



프랭크 허버트 지음 | 김승욱 옮김 | 황금가지 | 4304쪽 | 120,000원

류츠신 지음 | 이현아·허유영 옮김 | 자음과모음 | 1972쪽 | 67,000원

앨리스데어 그레이 지음 | 이운경 옮김 | 황금가지 | 476쪽 | 18,000원

비엣 타인 응우옌 지음 | 김희용 옮김 | 민음사 | 680쪽 | 18,000원

크리에이터 정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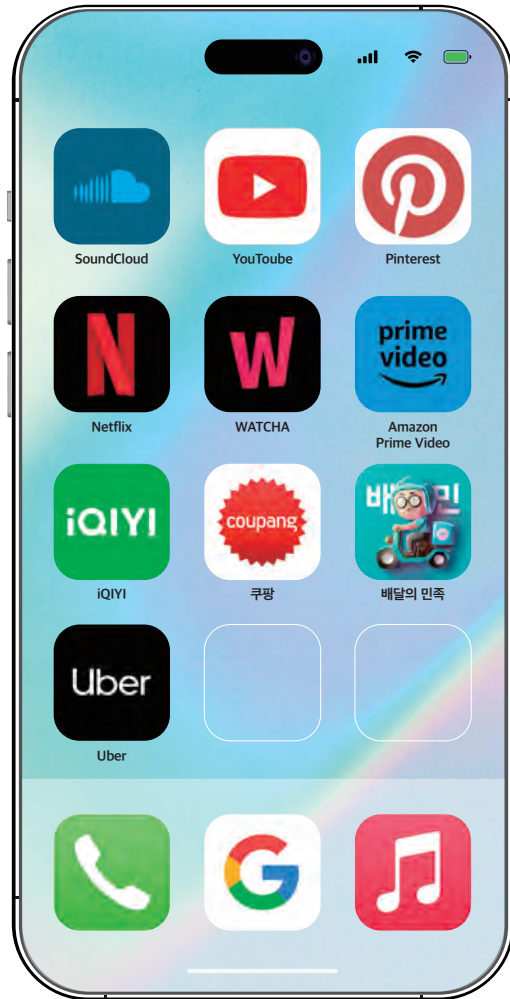
What's in my phone?

누구보다도 섬세한 감각과 영감으로 가득한 예술가들. 그들의 스마트폰 안에는 어떤 앱이 자리하고 있까? 경계를 넘나드는 전방위 크리에이터 정구호의 **최애 앱을 소개한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음악의 영감

음악 관련 앱으로는 **사운드 클라우드**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음악 창작자들이 애용하는 일종의 오픈 플랫폼인데,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 음악 애호가 누구나 자유롭게 음악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죠. 실험적인 작품들이 다양해서 새로운 아티스트나 음악을 발견하는 재미가 커요. 마치 티저처럼 일부만 공개된 음악을 듣고 협업을 제안하거나 나만의 앨범을 만들 수도 있죠. **애플뮤직**은 국내 음악 감상 앱과는 다른 차별점이 매력입니다. 풍부한 해외 아티스트 풀과



“What's in my phone?”

다채로운 장르, 유니크한 소팅^{sorting} 방식에서 애플뮤직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어요. **유튜브**는 오페라나 무용 등 공연 영상 자료가 풍성하고 업무적으로, 또 기본전환용으로도 볼거리가 많아요. 제가 요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중국 운남성 시골에서 밥 가꾸고 요리하는 일상을 보여 주는 인플루언서의 채널도 종종 틀어 놓곤 해요.

비주얼 레퍼런스

핀터레스트 마니아예요. 시각 자료의 영감을 얻을 때 1순위 앱입니다. 비주얼 레퍼런스로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담긴 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부터 드라마까지

웬만한 OTT는 모두 구독하고 있어요. 다만 스마트폰 대신 집에서 큰 화면으로 시청합니다. **넷플릭스**는 세계 각국의 다양각색 콘텐츠가 좋고, **왓챠**는 다시 봐도 좋은 올드 클래식과 영화제 수상작들을 만날 수 있죠. 미국 프로그램을 느끼기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Prime Video가 딱입니다. 중국 대하드라마, 영화도 좋아해서 **아이치이** iQIYI도 애용하고요. 요즘 재미있게 본 콘텐츠요? 넷플에서는 <데드 보이 탐정단>을 추천해요. 소년들이 귀신을 잡으러 다니는 판타지인데 특이한 점은 이 소년들 역시 귀신이라는 점이죠. ‘귀신 잡는 귀신’ 이야기지만 무섭진 않고 엄청 재밌어요. SF 마니아라 <삼체>와 <샌드맨>도 몰입해서 봤죠. 프라임 비디오에서는 디지털 사후 세계를 다룬 <업로드>를 강력 추천해요. 요즘 시대에 시사점이 많은 드라마입니다. <카니발 로 Carnival Row>도 재미있고... 더 많은데 지금 생각이 나질 않네요(웃음).

쇼핑과 실생활

온라인 구매가 생활의 90%를 차지해요. 그중 비율을 따진다면 **쿠팡**이 70%네요. 당장 급한 물건은 **배민 B마트**, 하루 기다릴 수 있으면 쿠팡을 써요. 어떤 물건이 필요하거나 궁금할 때에는 쿠팡으로 일단 검색해 보죠. 나머지는 다른 분들과 비슷해요. 해외에 나가면 **우버**를 쓰고, 스마트폰 연락처와 **구글** 검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정구호

연출가 겸 패션-공예-브랜드 등 다양한 장르의 디자이너, 리움미술관 크리에이터 브 디렉터로 활약 중이다. 서울패션위크와 공예트렌트페어 총감독을 역임했으며, 국립발레단-국립무용단-국립오페라단-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오페라와 무용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며 연출가로서의 영역 역시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제작 오페라 <나비부인>2023, <마술피리>2024 연출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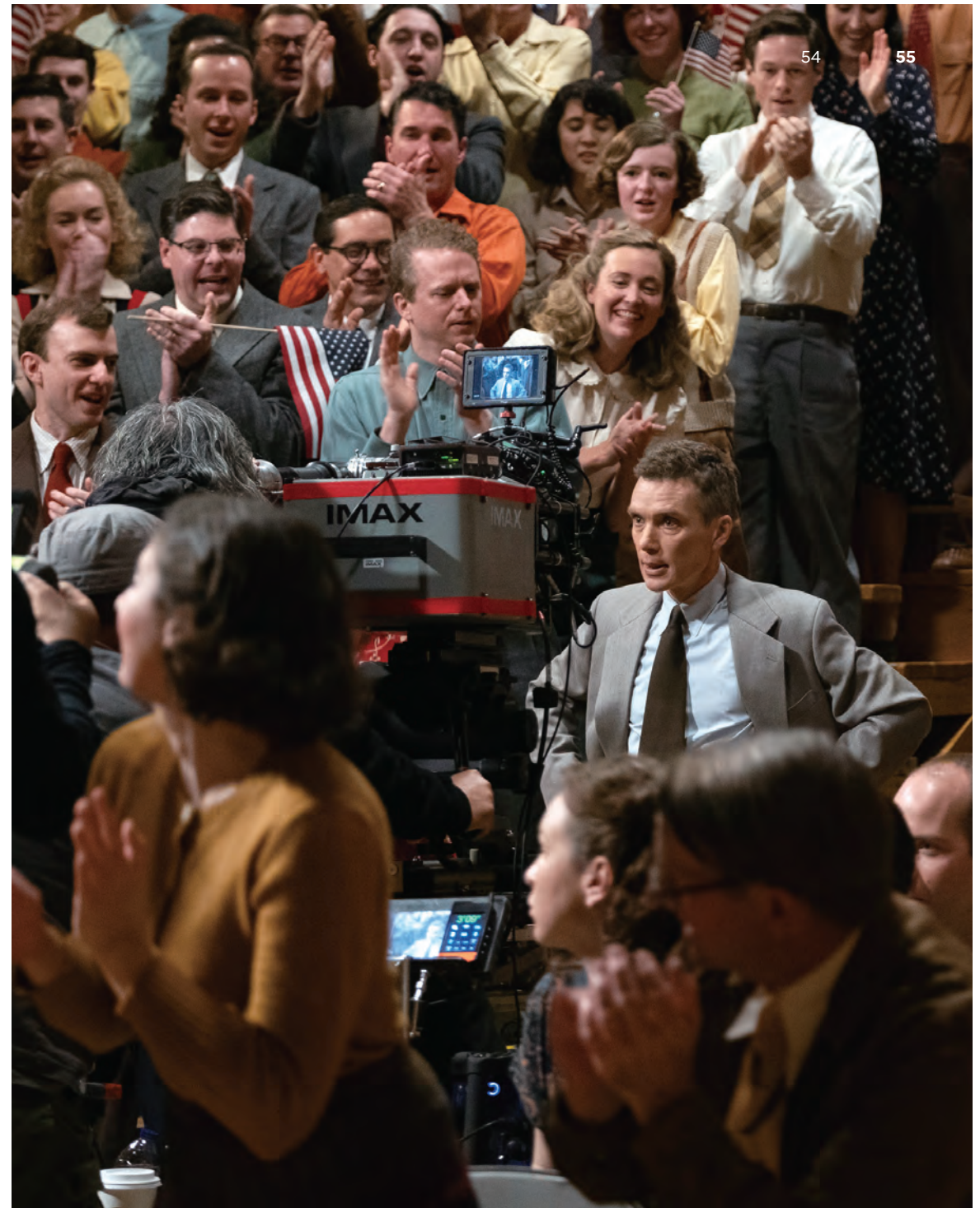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씨네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 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유니버설 픽처스

“자넨 이제 미국의 프로메테우스가 된 거야. 인류에게 스스로를 파괴할 힘을 준 자. 세상은 자넨 떠받들 거고 자넨 이제 바빠지겠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이론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킬리언 머피)에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케네스 브래너)가 찾아와 넌지시 말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건네준 죄로 바위에 묶여서 영원히 고문당한 프로메테우스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언이다. “보어가 신이라면 오펜하이머는 그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보어는 청년 시절 오펜하이머에게 조연자이자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는 ‘원자 폭탄의 아버지’로 불렸던 오펜하이머의 삶에 바탕하고 있다. <인터스텔라>부터 <인셉션>까지 놀란은 블록버스터와 예술 영화의 장르적 경계를 무너뜨리며 영화의 지평을 넓혀 온 거장이다. 하지만 놀란의 방대한 작품 세계에서도 이 영화는 삼중으로 예외에 속한다. 무엇보다 창작보다는 각색이고, 허구보다는 실화(實話)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전기 영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펜하이머 평전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사이언스북스)가 영화의 원작이다.

물론 이전에도 놀란은 각색 작업을 한 적이 있다. 노르웨이 영화의 리메이크인 <인셉션>부터 영국 소설 원작의 <프레스티지>, 심지어 슈퍼히어로 만화를 영화화한 <다크 나이트> 3부작까지 모두 그랬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영불 연합군 33만 명을 무사히 탈출시켰던 철수 작전을 다룬 <딩케르크>도 직접 쓰고 연출했다. 하지만 각색과 실화와 평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오펜하이머>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놀란 감독의 첫 전기 영화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궁금증은 그 이유로 귀



오펜하이머²⁰²³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출연 킬리언 머피, 에밀리 블런트, 매트 데이먼 외

영화 <오펜하이머>와 스트라빈스키
빛과 그들의 경계에서



결된다. 도대체 왜 오펜하이머였을까.

나치와의 전쟁이 끝나고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된 1953년 무렵이 영화의 출발점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정점에서 오욕의 심연으로 곤두박질치는 과학자의 운명을 다룬다는 뜻이다. 영화 대사처럼 오펜하이머는 3년간 4,000여 명의 인력과 20억 달러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시장, 보안관”이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에는 ‘소련과 연계된 공산당원’이라는 의심을 사는 바람에 비밀 취급 인가가 철회되고 원자력 위원회 자문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원자 폭탄의 아버지가 전후 미국의 원자력 정책에서 배제되는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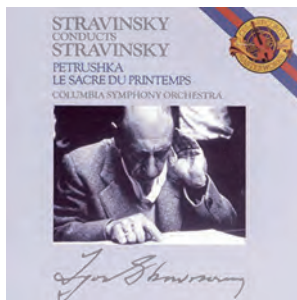
다독가였던 오펜하이머는 마르크스의 『자본』을 완독했고 1930년대 미국 공산당 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친동생 부부를 비롯해 아내와 심지어 연인도 전직 당원이었다. 영화에서도 스페인 내전 당시 공화파 정부 지원에 앞장섰던 오펜하이머는 동료 물리학자의 염려에 이렇게 답한다. “물리학에도 개혁이 필요해. 세상은 변하고 있어.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프로이트, 마르크스.” 하지만 “똑똑하면 많은 것이 용서된다”고 믿었던 오펜하이머의 천진난만한 낙관론도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냉전 논리 속에서는 그만 힘을 잃는다.

영화 초반부터 논란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정치와 과학의 영역을 맞물리게 하는 자신의 장기를 여지없이 보여 준다. 파편화되고 뒤섞인 비선형적 서사와 진리의 상대성, 분열된 자아 등은 논란 영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번 영화에서도 떨어지는 빗방울과 깨어진 컵의 파편 같은 비정형 속에서 규칙성을 찾으려는 오펜하

이머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준다.

1939년 9월 1일은 오펜하이머가 블랙홀 생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날이자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대전이 발발한 날이기도 했다.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만 같았던 이론과 현실의 영역은 이날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수렴하기 시작했다. 그 종착점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여라는 비극적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물리학이 대량 살상 무기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도덕적 당위론은 ‘나치가 먼저 핵 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비정한 현실론 앞에서 빛을 잃는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자부심도 ‘세상을 자칫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뒤섞인다. 영화에서 오펜하이머와 트루먼 대통령(게리 올드먼)이 나누는 것으로 묘사되는 대화는 이 간극과 괴리를 명징하게 보여 준다. “제 손에 피를 묻힌 느낌”이라고 고백한 뒤 떠나는 오펜하이머를 향해서 트루먼은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한다. “징징대는 아이들은 들여보내지 마.”

영화 초반부에는 T. S. 엘리엇의 『황무지』와 피카소의 ‘팔짱 끼고 앉아 있는 여인’,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까지 청년 시절 오펜하이머가 관심을 쏟았던 예술 작품들이 등장한다. 문학과 회화, 음악 분야에서 모두 현대의 탄생을 알렸던 문재자들이다.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피카소와 렘브란트, 르누아르의 그림을 소장할 만큼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반 고흐의 ‘해 뜨는 밀밭’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현대의 빛과 그늘을 모두 조명하는 영화인 셈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오펜하이머는 냉전의 희생양으로 전략할 위기 속에서도 머릿속으로는 핵폭발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떠올린다. 순전한 공상일까, 아니면 파멸의 연쇄 작용이 이미 시작된 것일까. <오펜하이머>는 실은 인류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한 남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놀란적’이기도 했다.



Stravinsky Conducts Stravinsky
이고리 스트라빈스키(지휘), 컬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CBS, CD)

스트라빈스키는 생전에 자신의 전 작품을 녹음으로 남긴 최초의 작곡가였다. 음반사 CBS가 1947년에 야심차게 시작한 스트라빈스키 전집 녹음은 그가 타계한 1971년까지 계속됐고, 말년에는 조수 로버트 크래프트가 지휘를 맡아서 이어 갔다. 스트라빈스키는 “이 음반들은 내 음악에 대한 정확한 연주를 안내할 수 있는 자료”라며 반겼다. 그 가운데 <봄의 제전>과 <페트루슈카>를 지휘한 음반이다. 작곡가는 “오늘날 연주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작품을 자신의 템포와 뉘앙스로 연주할 것을 강요하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자신의 특수성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한탄했다. 이 경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연주자는 또 얼마나 될까.



© 티벳, 웨이브릭스

리퀴드폴리탄과 워케이션 워케이션 문화, 지역의 트렌드가 되다



↳ 지난해 양양군은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죽도 해변에 50여 개의 좌석과 회의실 등을 갖춘 워케이션 업무 공간인 웨이브릭스 양양을 오픈했다
 ↳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 전시된 아이 웨이웨이의 설치 작품 '벨레방'²⁰¹⁶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인 '리퀴드폴리탄'은 액체를 뜻하는 '리퀴드'와 도시의 '폴리탄'이 합쳐진 용어로, 액체같이 유연하고 유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도시를 말한다. 한 곳에 정주하기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대세인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인 지금, 워케이션^{Work+Vacation}을 매개로 지역과 브랜드의 활성화를 꿈꾸는 다양한 노력은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아이 웨이웨이: 인간 미래'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전시를 감상하던 중 579벌의 옷과 신발 32짝이 가지런히 전시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각양각색의 옷이 줄지어 걸려 있는 풍경을 빈티지 마켓이 아닌 미술관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다. 그 물건들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에 위치한 이 도메니 난민 캠프에서 작가가 수거해 온 것들이었다. 맥락을 알면

글 서민경 디자인 칼럼니스트
 텍스트 공방 대표, 디자인과 공예 영역에 걸쳐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디자인과 큐레이팅을 전공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거쳐 월간 <디자인>에서 에디터로 일했다.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작품은 다르게 다가온다. '빨래방Laundromat'이라는 제목의 설치작품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던 난민들의 존재가 생생한 실체로 느껴진다.

즉시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노마드

각종 아트 비엔날레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화두인 '디아스포라Diaspora'는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다. 처음에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주 방식, 이주 집단, 거주지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었다. 식민 지배를 겪었던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아픈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있다. 아이 웨이웨이의 '빨래방'에 전시된 옷가지들의 주인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들이었다. 작가가 이도메니 난민 캠프까지 갔던 것은 어떤 연유였을까?

2009년 쓰촨 대지진 발생 당시 그는 사건의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하는 중국 당국의 대처 방식에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때부터 반체제 예술가로 낙인찍히며 구속과 폭행, 가택 연금을 당했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 인권상 수상을 위해 압류당했던 여권을 돌려받고 독일로 출국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유럽 곳곳을 떠돌면서 표현의 자유와 난민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며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작가가 역시 디아스포라적 삶을 사는 셈이다.

『트렌드코리아 2024』에서 발표한 올해의 10대 소비 트렌드 중 하나가 '리퀴드폴리탄'이다. 액체를 뜻하는 '리퀴드liquid'와 도시라는 의미의 '폴리탄opolitan'이 합쳐진 용어로, 액체같이 유연하고 유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도시를 말한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그의 저서 『액체현대』에서 현대 사회를 액체라는 은유로 설명한 데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바우만에 따르면 근대 이전은 고체 상태의 경직된 사회였다.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식량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은 이방인, 타자, 침입자로서 배척해야 할 대상이었다. 정주하는 삶은 우월하다고 여겨진 한편, 선량한 시민의 의무에서 벗어나 경계를 마음대로 침범하는 낯선 존재는 달갑지 않은 눈길로 바라봤던 시절이었다. 견고하게 고착된 신분제 사회가 허물어진 현대



로컬스티치 통영의 워케이션 프로그램

© 로컬스티치

사회는 바우만의 표현대로 결속 끊기, 회피, 손쉬운 도주, 절망에 찬 추격의 시대다. 자유라는 이름은 개인을 무한 경쟁 시장으로 내몬다. '신분'이 사라진 빈자리는 '계급'으로 채워진다.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만들어지는 부의 크기만큼 계급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강할지가 정해진다는 믿음은 무한 경쟁 체계를 만들어 낸다.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기술이 현생을 잘 살기 위한 처세가 되었다. 소속감, 집단의 정체성보다 개인의 능력과 민첩한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한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과거의 지배자는 영토를 정복해서 공간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 요새화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을 지배하며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가 우위에 있다. 비만과는 거리가 먼 날렵한 신체, 언제든지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운동화, 어디에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노트북, 스마트폰 그리고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지품 등이 즉시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화적 징표가 된 것이다. 와이파이기가 터지는 곳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어디에서 일할지 선택하는 현대인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게 된 지는 이제 겨우 30여 년이 지났다. 난민, 망명자,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이들에게서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느껴지지만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매끄러운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지역 부활의 희망이 된 워케이션

오늘날 디지털 노마드는 '워케이션Work+Vacation' 열풍의 선두에 선 주역이라 할 수 있다. 휴가지에서 일하고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각자의 여가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는 워케이션 문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 대신 재택근무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숙소와 업무 공간을 지원하는 워케이션 제도를 경쟁적으로 시행해 화제가 되었다.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부분의 직장인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 위기에 몰린 지역 경제를 되살릴 방안으로 워



로컬스티치 통영은 2022년 강구안 항구 앞에 문을 열었다. 코리빙과 코워킹 공간을 결합한 이곳에서 지난 4월에는 카누 워케이션 카페가 운영되었다

© 로컬스티치

케이션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양양군은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죽도 해변에 50여 개의 좌석과 회의실 등을 갖춘 워케이션 업무 공간인 웨이브웍스 양양을 오픈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객 규모가 거주 인구의 60배를 넘는 이 지역에 단기 관광객이 아닌 장기 체류객을 늘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성수기에 반짝 몰려들었다가 사라지는 관광객들과 달리 한곳에 좀 더 오래 머무르며 일과 여가를 즐기는 워케이션러들을 보는 시선은 긍정적이다. 일본의 시민 활동가 다카하시 히로유키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한 지역과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단순한 외지인이 아닌 관계 인구가 된 워케이션러들이 훗날 해당 지역에 등지를 트는 정주 인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기획자, 프리랜서 작가,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이 워케이션을 즐기는 이들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특정 장소에 매여 있기보다는 유동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도 이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소비할 만한 트렌디한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의 워케이션 스폿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은 오피스 제주는 숙박 시설과 공유 오피스 공간을 갖춘 조천점과 사계점을 운영한다. 서울에서 이미 인지도를 구축한 국내 공유 오피스 브랜드들도 속속 지역으로 진출했다. 멥그로브 고성과 로컬스티치 통영이 대표적 사례다.

여러 브랜드들도 워케이션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자사 제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워크 앤 라이프스타일 가구 브랜드 데스크어는 2022년 강원도 양양에 데스크어 워케이션 센터를 짓고 각종 오피스용 책상과 의자, 사무기기를 갖추어 놓아 잠재 고객들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웬만한 팝업 스토어보다 홍보 효과가 더 큰 셈이다. 동서식품은 지난 4월부터 한 달여간 로컬스티치 서교점과 통영점에 카누 워케이션 카페를 열어 다양한 카누 커피를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캐논코리아도 워케이션을 테마로 참가자를 모집해 제주도에서 3박 4일간 캐논 카메라와 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캐논 R케이션'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워케이션을 테마로 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해 리워드폴리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지역의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역민을 늘리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다. 워케이션을 즐기러 온 디지털 노마드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옷 주인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아이 웨이웨이의 '빨래방'은 바로 그런 점에서 묵직한 울림을 준다.



멥그로브 고성은 임팩트 디벨로퍼 엠지알비(MGRV)가 지난해 오픈한 리모트 워커를 위한 공간이다 © 멥그로브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데스크어 워케이션 센터는 '워크 온 더 비치(WORK ON THE BEAC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워케이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 데스크어



책, 트렌드가 되다

출판계의 희망으로 떠오른 MZ 독자들

글 신재우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문화일보에서 출판·문학을 담당 중이다. 매주 금요일 문화일보에서 '북리뷰'를 쓴다. 독서를 43%의 시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인 독서율 43% 시대, 절망할 수도 있는 출판계의 희망은 MZ 독자들이다.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 소위 책 안 읽는 세대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출판계의 희망이라는 말에 의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독서를 하나의 '힙'으로 받아들이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2030 독자들의 모습은 출판 시장이 주목해야 할 하나의 트렌드이자 현상이다.

그들이 책에 빠진 이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의 수치를 통해서도 이 현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해당 조사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1년간 일반 도서 1권 이상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은 43%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다. 다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연령대별 독서율이다. 19~29세의 독서율은 74.5%로 조사 집단 가운데 가장 높다. 뒤를 잇는 세대 역시 30~39세로 이 또한 68%에 달한다. 성인 절반 이상이 책을 안 읽는다는 말은 이들 세대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것은 이들의 독서 문화다. 성인들이 책을 읽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꼽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 '책 이외 매체를 이용해서'(23.4%)를 뛰어넘어 이들이 책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뭘까? 출판사 마케팅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들에게 독서는 곧 '경험'으로 수렴한다. 이색적이거나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경험을 찾아 헤매는 2030 문화 향유층에게 책은 어쩌면 가장 적합한 콘텐츠일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의 니즈에 호응해 출판사들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북클럽이다.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북클럽의 시초로 불리는 출판사 민음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입 신청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호응이 이어졌다. 문학동네, 마음산책 등 이제는 여러 출판사에서 전개하는 북클럽 서비스는 사실 대중보다는 마니아층, 즉 팬덤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평균 4~8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대가로 1년간 출판사의 굿즈와 책을 제공받고 가입 회원을 위한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관심을 갖기 힘들다는 의미다.

힙한 취미가 된 독서

이러한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세대의 힙함과 맞닿아 있다. 주류 시장에서 위스키 열풍이 부는 것처럼 이들의 콘텐츠 시장에서는 독서가 독특하고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조아란 민음사 마케팅부장은 “한쪽에선 성인의 절반 이상이 책을 안 읽는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쪽에선 책이 새로운 ‘힙’으로 자리 잡아서 독서를 인증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한다”며 “책과 텍스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만큼 마케팅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영국 언론 <가디언>에서 ‘Z세대가 책과 도서관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Z세대 모델 카이아 거버의 “독서는 정말 섹시하다”는 발언을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밀리의서재는 더현대 서울 6층에서 소셜 멤버들이 돌아왔습니다.의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소설 속 주인공 혜원의 분실물인 필통, 가방 등은 물론 책 속 문장을 천에 새긴 키링을 한정판 굿즈로 제작,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신재우

북클럽을 통해 팬층을 구축했다면 잠재적 독자들에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출판사들은 오프라인으로 향한다. 비록 타 업종에 비해 늦은 경향이 있지만, 출판사들은 최근 팝업 스토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문학동네, 밀리의서재, 문학과지성사, 창비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팝업 스토어를 개최한 출판사들은 마치 식품·패션 브랜드처럼 홍보에 나섰다. 우선 서울 마포, 성수, 여의도 더현대 등 젊은 연령대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을 열고 기존 구매층이 아닌 신규 독자들의 방문을 유도한다. 팝업 스토어에서 단순히 책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굿즈나 공간 인테리어를 통해 이목을 끄는 방식도 공통적이다.

지난달 밀리의서재가 더현대 서울 6층에서 연 소설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의 팝업 스토어에서는 책 외에도 소설 속 주인공 혜원의 분실물인 필통, 가방 등은 물론 책 속 문장을 천에 새긴 키링을 한정판 굿즈로 제작해 가장 눈에 띄는 곳에서 판매했다. 같은 달 마포구에서 출판사 창비가 500호 시선집 발간을 기념해 연 팝업 스

터 ‘시크닉’에서도 키링, 책갈피, 에코백 등 현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판 굿즈 판매가 이목을 끌었다. 실제로 한 출판사 관계자는 “팝업 스토어는 굿즈 제작비, 임차료 등을 고려하면 이윤이 남지는 않는다”며 “그보다는 홍보 효과, 기존에 닿을 수 있던 소비자층이 아닌 책과 무관한 독자들과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출판사들의 유의미한 변신

출판사들의 자체 콘텐츠 제작도 활발해졌다. 구독자 22만 명을 보유한 민음사의 유튜브 채널 ‘민음사TV’는 직접 회사 내 편집자들의 일상을 보여 주면서 자연스럽게 신간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그간 독자들이 궁금해했던 출판사 업무 등을 소개 하면서 독자들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다. 유튜브 채널 외에도 많은 출판사가 SNS를 통해 책 관련 소식을 알리고 신간과 관련된 짧은 비하인드 스토리나 출간 예정작 예고를 올리기도 한다. 서점 매대나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한 간접 홍보뿐만 아니라, 소통 채널을 직접 운영하면서 한층 가까이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책 자체가 아닌 굿즈와 북클럽 활동, SNS에 책 표지를 찍어 올리는 독서 인증샷 등은 교양의 영역이자 지혜의 원천이었던 독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최근 국내 주요 출판사 71곳의 총 영업 이익이 42% 넘게 급감하고 출판사들이 폐업 위기라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상황에서 고고한 추락보다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출판사에도, 종이책이 계속해서 나오길 기다리는 독자들에게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제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다. 책에 대한 경험 그 자체가 어느덧 새로운 독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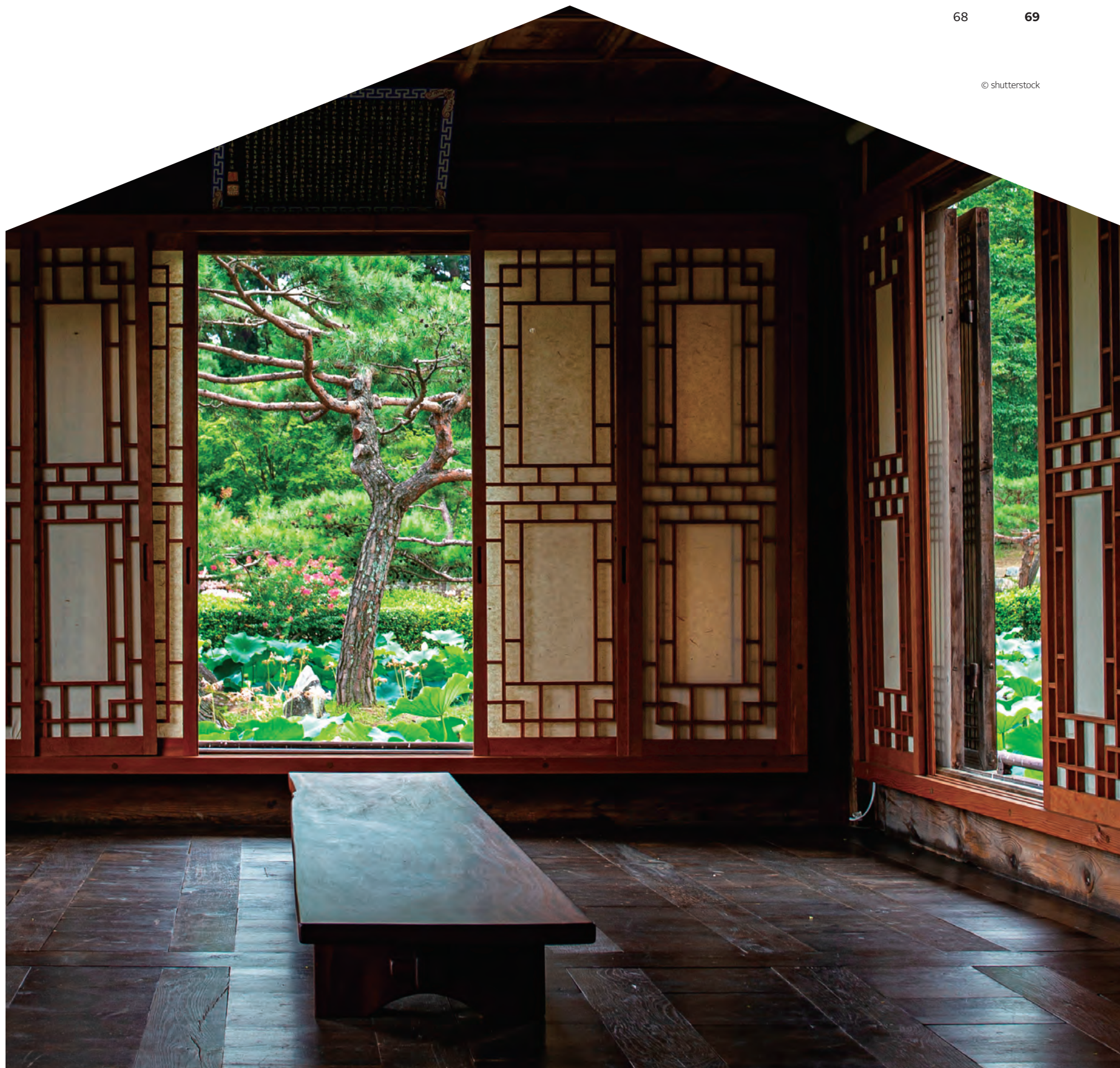
구독자 22만 명을 보유한 민음사의 유튜브 채널 ‘민음사TV’는 직접 회사 내 편집자들의 일상을 보여 주면서 자연스럽게 신간을 소개한다. © 민음사TV

집이 은유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글 김신 디자인 저널리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월간 <미술공예> 기자를 거쳐 월간 <디자인>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13년에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있었다. 2014년부터 칼럼니스트로 독립해 디자인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어떤 대상의 본질을 알려면 그 대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은유하는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언제나 그림은 그것이 모방하는 실제보다 아름답다는 뜻이다. 그림은 현실을 이상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 은유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그림의 본질은 대상을 이상화한다는 것이다. 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은유는 ‘집처럼 편안하다’는 말이다. 손님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집주인은 이렇게 말한다. “집처럼 편안하게 계세요”라고. 또 사람은 고향을 그리듯이 집을 떠나면 언제나 집을 그리워한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 대개는 향수병에 걸린다. 그토록 기대했던 여행을 가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면 왠지 안도감이 든다. 그 이유는 비록 허름하고 보잘것없더라도 내가 살았던 집, 살고 있는 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은 어떻게 ‘편안함’이라는 본성을 구축하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자.



불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에 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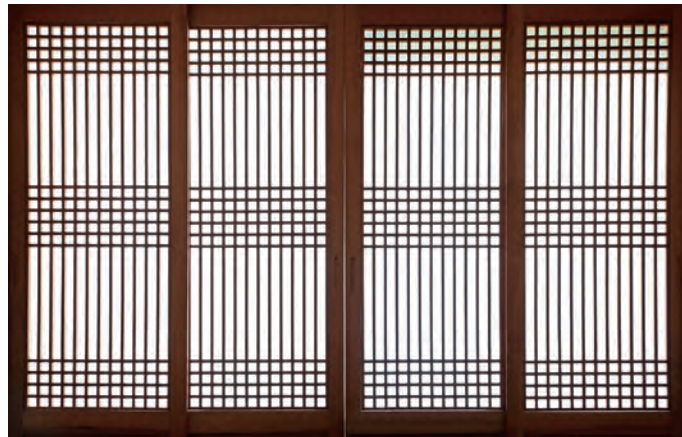
초기 인류는 한곳에 정착해 살지 않았다. 이동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마치 철새들이 먹이를 찾아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것처럼 인류 역시 잠시 정착한 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새로운 먹이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섰다. 이동을 하더라도 인류에게는 보금자리가 있었다. 초기 인류의 보금자리는 물리적인 형태의 집은 아니었고, 한 무리가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특정한 장소를 말한다.

보금자리는 왜 필요할까? 초기 인류는 개별적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빠른 다리, 하늘을 나는 날개 따위가 없는 인류는 무기력한 존재였기에 조직적으로 행동할 때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각자, 또는 한 두 명씩 짝을 지어 수렵이나 채집 활동으로 모은 음식을 가져와 무리 전체가 다 함께 식사했다. 인류는 대략 150~180만 년을 전후로 불을 통제하는 기술을 익힌 것으로 추정한다. 불을 이용할 줄 알게 된 인류는 고기나 생선, 뿌리 음식 등을 부드럽게 익혀 먹었다. 이 무리는 오늘날과 같은 가족보다 규모가 크지만, 부족은 아니었고 일종의 가족 공동체와 같았다. 소유 개념이 희박한 이들은 개인이 꽤 괜찮은 음식을 찾더라도 결코 혼자 먹지 않고 다 같이 먹을 생각을 했다. 따라서 반드시 음식을 가져와 함께 먹을 보금자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수확한 음식을 나누었다.



신경인류학자 존 S. 앨런은 “불은 음식을 나누거나 고기를 먹는 행위처럼 긴밀한 가족 단위로 뭉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며 “집은 150만 년 전 불과 가족의 결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불은 결국 인류에게 두 가지 정서적 감각에 눈뜨게 했다. 하나는 불을 중심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가족이라는 따뜻한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로부터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영국 밴트리 하우스의 벽난로. 대저택 거실의 중심에는 벽난로가 있다
© Christopher Holt



한옥의 창호지는 찬바람은 막고 빛은 통과시켜 집 안을 따뜻하고 밝게 만든다
© shutterstock

것이다.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고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이 있는 집이다.

다양한 기술적 장치로 불을 대체하다

불은 최근까지 전 세계 모든 집의 중심에 있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여전히 집 안의 중심에 불이 있다. 하지만 잘사는 나라의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기 힘들어졌다. 만약 집 안에서 불꽃이 보인다면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고 소화기를 꺼내 당장 진화해야 할 것이다. 수만 년 동안 집의 본질을 구성했던 불은 왜 사라진 걸까? 인류는 기술적 진보의 결과 자연에 개방된 보금자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집을 만들었다. 벽과 지붕이라는 경

계를 만들어 추위와 더위, 눈과 비, 그리고 독충과 맹수라는 혹독한 자연으로부터 안전한 문명의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 공간 안에 불을 피우고 관리했다.

유럽의 경우, 중세까지 궁이나 귀족의 대저택을 뺀 대부분의 집은 여러 공간으로 구획되지 않은 하나의 홀이었다. 그 안에서는 엄마와 아빠, 자식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살았다. 홀의 중심에 화로가 있었다. 화로의 기능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요리이고 다른 하나는 난방이다. 따뜻한 건 좋았으나 집 안의 불은 내부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에 따라 불은 요리용과 난방용으로 분화되었다. 요리를 별도의 공간에서 하고자 부엌이 탄생했다. 거실이자 침실로 사용하는 공간에는 벽난로나 화로를 만들어 불을 난방용으로만 사용했다. 대저택의 부엌은 규모가 크고 그곳에 있던 개방된 화덕 또한 거대해서 화재 위험 또한 상당했다. 이에 따라 부엌을 저택 밖에 만들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와 부엌의 위험하고 뜨거운 개방 화덕은 무쇠 스토브로 대체되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장작이나 석탄으로 태우는 무쇠 스토브는 최종적으로 가스레인지로 대체되었다. 가스레인지는 요리할 때에만 잠시 불꽃을 보일 뿐이었다. 안전하고 깨끗한 것을 극도로 추구하는 현대인은 가스 불조차 위험하다고 여겼는지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함으로써 마지막 불꽃이 사라졌다. 난방 기구는 이미 전통적인 벽난로나 철제 난로에서 불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기 히터, 냉난방 겸용 온풍기 등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이런 불꽃 없는 불에 없는 것이 있다. 장작을 태우는 불은 그것을 중심으로 가족을 모이게 함으로써 따뜻함은 물론 강력한 유대감을 안겨 주었다. 현대의 난방 기구는 이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이 기능을 이어받은 것은 TV다. TV는 불꽃처럼 모니터에서 빛이 나고 스피커로 소리가 나온다. 원시 인류가 모닥불 주위에 모인 것처럼 현대의 가족은 TV 앞에 모여 유대감을 나누었다. 레인지, 인덕션, 전기오븐, 에어프라이어, 히터, 온풍기, 온돌 보일러, TV는 결국 현대인의 불인 셈이다.

경계를 만들고 구멍을 뚫다

독일 건축가 고트프리트 켐퍼는 건축의 네 가지 요소로 난로, 지붕, 울타리, 둔덕을 들었다. 건축이란 불을 중심에 두고 바닥, 벽, 지붕으로 경계를 만드는 일이다. 경계는 막혀 있지만 또한 반드시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그 구멍으로 여러 가지가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드나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을 만들었다. 집 안을 쾌적하게 하려면 내부의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외부의 맑은 공기가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굴뚝과 창을 만들었다. 창은 바람과 공기뿐만 아니라 무수한 많은 것들이 드나든다. 빛의 유입은 집 안을 밝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난방 장치만큼이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또한 외부의 소리와 풍경이 들어와야 한다. 외부의 소리는 정보로서 밖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한다. 풍경은 감상의 대상으로 마음을 즐겁게 해 준다.

이렇게 채광, 환기, 통풍, 출입의 기능을 하는 개구부^{開口部}는 건축 디자인의 핵심이다. 이 기능들이 원활히 제 구실을 하려면 특별한 재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집은 개구부가 막혀 있어야 함과 동시에 뚫려 있어야 하는 모순된 기능을 요구한다. 즉 겨울에는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개구부를 막아야 하지만 빛과 풍경, 소리는 유입되어야 한다. 과거 서양의 집은 개구부를 열고 닫는 재료로 천이나 나무를 이용했다. 비싼 유리를 감당할 수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천이나 가죽을 두르고 공기가 차가우면 덧창을 닫았다. 나무 덧창을 닫으면 찬 공기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풍경마저 차단하니 집 안은 캄캄했다. 이에 반해 한옥의 창호지는 찬 공기를 차단하면서 빛을 유입하므로 방 안이 환하고 따뜻했다. 단점이라면 풍경을 볼 수 없다는 점과 강도가 약하다는 점이다. 유리가 대량 생산된 현대에는 결국 이 재료로 통일되었다. 이처럼 빛과 공기, 소리와 풍경, 사람과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집을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진다.

늘어나는 물건을 담다

원시 인류에게는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다. 강력한 공동체 정신은 더불어 살아야 한



르 코르뷔지에가 디자인한 빌라 사부아. 현대 건축은 개구부의 크기를 확대하여 빛을 더 많이 들이고 파노라마 풍경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다.

© Netphantm

다는 관념을 만들었고 소유로 인해 시기와 갈등의 불화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집 안에는 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잉여 자원으로 말미암아 물건만 만들어 내는 전문가 집단이 생겼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물건들이 늘어나자 강렬한 소유 개념이 자리했다. 집은 일종의 커다란 용기^甕가 됐다. 그 용기가 담은 것은 사람과 불이었다.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사람과 함께 늘어나는 개인의 소유물도 담았다. 그 소유물은 한 개인의 지위와 정체성을 드러냈다. 가구, 식기, 옷가지, 장신구... 등.

현대에 오면 그 가짓수가 수천, 수만에 이른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런 물건들과도 시간을 쌓아 간다. 집이란 익숙한 사람, 익숙한 사물들의 집합체가 된다. 자신의 소유물이 모두 소중한 것 사랑스러운 것은 아닐 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물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각 물건들이 어디에 놓여 있고 언제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는 확신이자 자신감이다. 소유물에 대한 통제력은 가족에 대한 것을 압도한다.



프랑스의 메종 드 베리, 책꽂이와 책들, 소파와 의자, 테이블 등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익숙한 사물들은 오직 집주인에게만 편안함을 제공한다

©Christie

편안함이란 바로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집, 또는 낯선 공간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자. 그 낯선 공간의 물건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다시 말해 사용하고자 하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불편해지는 것이다. 낯선 장소에 가면 그 공간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데에만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순간 사람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그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공간, 그곳이 바로 집이다. 건축·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가구와 조명으로 채워져 있어도 그것은 공허할 뿐이다. 그런 공간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내 집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시간이다.

세월과 함께 낡아 가고 추억으로 쌓인다

이 세상의 모든 인공적 사물은 낡아 가고 결국 파괴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집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은 금방 폐가가 된다. 사람이 사는 집 역시 조금씩 낡아 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세월의 풍화는 집의 지붕과 벽, 바닥에 흠집을 남긴다. 물건 역시 사용감으로 낡아 간다. 풍화, 즉 햇빛, 공기, 수분

그리고 사용에 따라 집과 그 안의 물건들이 상처가 나고 늙어 가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그 풍화의 과정을 온전히 내가 기억할 때 그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된다. 사람은 새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용감이 뚜렷하고 낡은 빈티지에서도 나름대로 맛을 느낀다. 새것이 줄 수 없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낡아 감의 역사를 내가 기억했을 때 그 물건은 더욱 소중해진다. 집 안의 모든 물건은 내 기억의 저장소이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오랫동안 쓴 물건이 수명을 다해 폐기할 시간이 오면 큰 상실감을 느끼곤 했다. 20년 가까이 본 TV를 버리게 된 한 부인이 TV를 쓰다듬으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떠나보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과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정이 든다. 뭐든지 오래 함께하면 정이 든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그 물건들은 내 손과 몸이 수없이 매만진 접촉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이란 터치로부터 쌓인다. 둘째는 그 물건들은 내 취향의 증거다. 셋째는 오랜 시간 나와 함께함으로써 내 기억이 그 물건에 저장되어 있다. 집도 마찬가지다. 집이란 내 손과 몸의 접촉면이고 내 취향의 진열장이며 내 기억의 저장소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다면 집은 아무리 편리하고 사치스럽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집은 내 집이 될 수 없다.

이사를 할 때를 떠올려 보라. 집 안의 물건이 다 빠져나온 그 공간은 물건이 차 있을 때의 공간과 물리적으로는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인 것이다. 내 물건들이 사라진 순간 편안함도 거품처럼 사라진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낡아 가는 집에서 극도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건축가가 세련되고 아름답게 완성한 집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집은 완성되는 법이 없으며 집주인과 함께 늙어 가는데, 그때 비로소 집주인과 가족들에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한없는 편안함을 제공한다.



기술의 발전은 집 안에서 불꽃의 존재를 사라지게 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세련된 실내를 구현했다. 하지만 기술은 여전히 불의 본질을 버리지 않았다
© Plannerce

명사특강

낭만과 열정

예술가에게 듣는 살아있는 예술이야기



6.18(화) 11시
동물원을 통해 본 한국 대중가요사

박기영 교수
그룹 동물원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



6.25(화) 11시
팔도 소리를 찾아서

방영기 명창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존회 이사장



7.2(화) 11시
박정자의 연극 이야기

박정자 배우
연극배우
관악문화재단 이사장



7.9(화) 11시
김성녀의 삶과 무대인생

김성녀 배우
마당놀이, 연극배우,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신청기간 2024. 6. 5(수) 10:00 ~ (선착순마감) 수 강 료 강좌당 20,000원(4개 강좌 패키지, 아카데미 수강생 25% 할인)
신청방법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현장방문 접수 문 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783-8156

※ 자세한 사항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아카데미 참고 www.snart.or.kr

아카데미 플러스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카데미

아카데미플러스 명사 특강 '낭만과 열정'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6+7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SNART NEWS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SEONGNAM+

아카데미플러스 명사 특강 '낭만과 열정' 예술과 삶이 하나였던 그들의 이야기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음악인 박기영



국악인 방영기



배우 박정자



배우 김성녀

연기로,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며 평생을 무대에 헌신한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 그들이 들려주는 예술과 삶, 무대 이면의 생생한 이야기가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명사 특강 '낭만과 열정-예술가에게 듣는 살아 있는 예술 이야기'로 펼쳐진다. 대한민국 무대예술의 산증인 배우 박정자와 김성녀, 그룹 <동물원>으로 포크 음악의 역사를 써 내려간 대중음악인 박기영, 국악인 방영기가 예술가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소통을 나눌 예정이다.

2005년 성남아트센터 개관 이후 수준 높은 예술 강좌로 사랑받아 온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가 기존의 학기제 정규 강좌 외에 다양한 트렌드와 수강생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특강 시리즈 '아카데미플러스'를 새롭게 준비했다. 그 일환으로 6월 18일부터 매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명사특강 '낭만과 열정-예술가에게 듣는 살아 있는 예술 이야기'(총 4회)는 대중음악과 국악, 연극, 창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평생을 헌신한 예술가들이 전하는 삶과 예술, 무대 뒤 인간적인 면모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다.

6월 18일(화) 첫 순서는 동물원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한 박기영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의 '동물원을 통해 본 한국 대중가요사'로 시작한다. '거리에서' '변해 가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동물원은 1988년 데뷔 이후 한국 포크의 전설로 불려 온 그룹. 후학 양성과 더불어 최근 동물원의 음악과 밴드 결성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주크박스 뮤지컬 <다시, 동물원>의 음악감독으로도 활동 중인 박기영 교수가 들려주는 한국 대중가요의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6월 25일(화)은 성남을 대표하는 국악인, 방영기 명창이 들려주는 국악 이야기 '팔도 소리를 찾아서'다. 국가무형유산 선소리산타령 보존회 이사장이자 전승교육사로, 또 성남 지역문화재·전통문화 발굴과 전승자로 평생 헌신한 방영기 명창이 우리 소리와 전통문화에 지닌 애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7월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시대의 명배우, 박정자와 김성녀가 찾아온다. 먼저 7월 2일(화)에는 <박정자의 연극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1962년 연극 <페드라>로 데뷔한 이후 쉽 없이 무대를 지켜 온 박정자는 지난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최근 개막을 앞둔 <햄릿>까지 여전히 뜨거운 카리스마로 한국 연극계의 거목다운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천의 얼굴'이자 '마당놀이의 여왕'으로 꼽히는 김성녀(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예인이다. 연기는 물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학장 등 예술행정과 교육까지 넘나드는 김성녀의 예술 이야기 <김성녀의 삶과 무대인생>(7월 9일)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강좌 신청은 6월 5일(수)부터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모두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6월 25일(화)은 성남을 대표하는 국악인, 방영기 명창이 들려주는 국악 이야기 '팔도 소리를 찾아

아카데미플러스 명사 특강
문의 |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783-8156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June/July 2024

Calendar + Map + Programs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2024년 06 + 07월

다채로운 음악 콘서트와 전시회부터 드라마틱한 춤과 연극까지,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4.6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성남아트리움 ㉤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 상어게인 3 TOP 10 전국 투어 (14:00, 19:00) ㉡ 뮤젠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00) ㉢ 한국조이앙상블 정기연주회(17:00) ㉣ 뮤지컬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11:00, 14:00, 16:30)	㉣ 아베크피아노앙상블 정기연주회(19:00) ㉣ 뮤지컬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11:00, 14:00, 16:30)
3	4	5	6	7	8	9
■ ㉠ 월요 시네클럽 <8월의 크리스마스> (13:30)	㉣ 송은주&페터 폰 빈하르트 듀오 콘서트 (19:30)	㉣ <FUN Again>(19:30) ㉣ 이영주 피아노 독주회(19:30) ■ ㉠ 무료 정기상영 <노 임팩트 맨>(14:00)	■ ㉡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15:00) ㉣ 아티움 트리오 창단연주회(14:00) ㉣ 어린이 서커스 마술쇼 (11:00, 14:00, 16:00)	㉣ 박민희 피아노 독주회(19:30)	㉣ 퍼커셔니스트 이신국의 앙상블 엑스 <전설의 게임과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 (19:30) ㉣ 소프라노 문혜연 독창회(14:00)	㉣ 신윤원 윤혜경 듀오 리사이틀(18:00) ㉣ 우리소리 흥겨운 한마당(14:00)
10	11	12	13	14	15	16
■ ㉠ 월요 시네클럽 <아무르>(13:30)	㉣ 피아노 박사 샵 콘서트 선물 시리즈 3 (19:30)	㉣ 정상희 바이올린 독주회(19:30) ■ ㉠ 무료 정기상영 <빌리 엘리어트> (14:00)		㉣ 아이미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 미스트롯 3 전국 투어(14:00, 19:00) ㉣ 2024 플루트 오케스트라 아우름과 (사)사랑정원이 함께하는 나눔콘서트 (19:00) ■ ㉡ 인.애.당신의 뒷모습(17:00) ㉣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11:00, 14:00, 16:30)	㉣ 미스트롯 3 전국 투어(14:00) ㉣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콘서트 (19:00) ㉣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11:00, 14:00, 16:30)
17	18	19	20	21	22	23
■ ㉠ 월요 시네클럽 <업>(13:30)		㉣ 까메라타 정기연주회(19:30) ■ ㉠ 무료 정기상영 <헤드윅>(14:00)	■ ㉡ 마티네 콘서트(11:00) ㉣ 피아노포르테의 추억(19:30)	㉣ 꿀잼어린이극장 <나는 기와입니다>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19:00)	■ ㉡ 통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19:30) ㉣ 성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17:00) ㉣ 2024 '신데렐라의 꿈'(16:00, 19:30)	■ ㉡ 통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15:00) ㉣ 정길선의 가야금 기.승.전(15:00) ㉣ 성남이로운재단과 함께하는 하소라 콘서트(17:00)
24	25	26	27	28	29	30
■ ㉠ 월요 시네클럽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3:30)	㉣ 하늘소리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테너 진성원 독창회(19:30)	㉣ 김세은 피아노 독주회(19:00) ■ ㉠ 무료 정기상영 <위대한 쇼맨>(14:00) ■ ㉡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베토벤 I>(19:30)	㉣ 국민음악극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9:30)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 이육규-황지인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30) ㉣ 항공 정금란 선생 타계 30주기 기념 공연 (19:30)	㉣ 국민음악극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4:00, 19:30) ㉣ 가천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국민음악극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4:00, 19:00) ㉣ 성남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신데렐라(11:00, 14:00, 16:30) ㉣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15:00)	㉣ 국민음악극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4:00, 19:00) ㉣ 비르투오소 오케스트라 20주년 기념 연주회(17:00) ㉣ 정영안 첼로 독주회(19:30) ㉣ 박규희 기타 콘서트 'From Bach'(16:00)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영국국제교류사업 워크숍 결과물 전시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7월 8일~8월 4일	기획전시실
■ 2024 성남작가조명전 2 <조창환: 숨, 묵묵한>	4월 26일~6월 16일	반달갤러리
■ 2024 성남작가조명전 3 <이계진: 우연한 삶>	6월 28일~8월 18일	반달갤러리
■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2월 16일~12월 22일	상설전시실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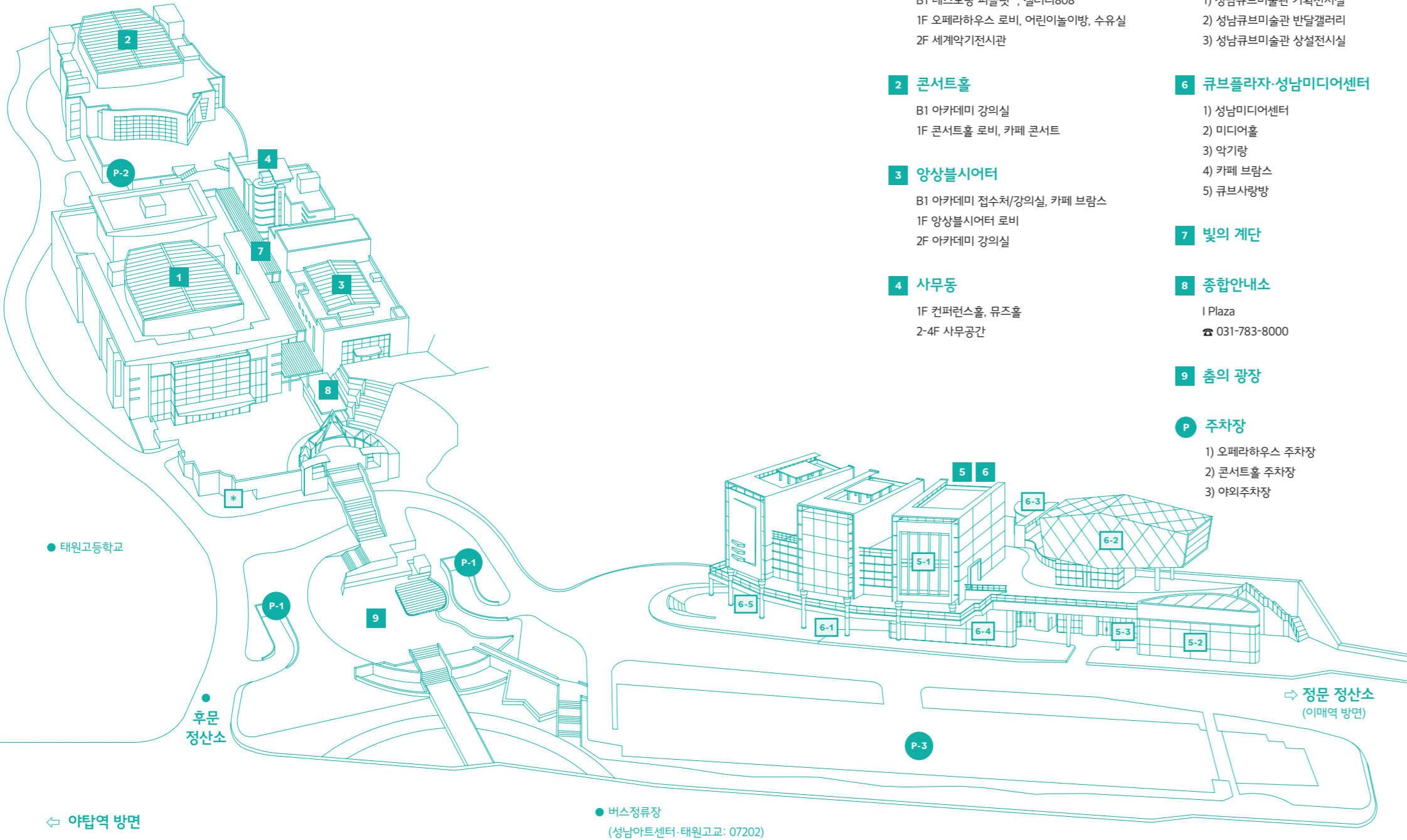
제4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5월 28일~6월 8일
제38회 성남문화예술제 <성남미술협회전>	6월 11일~6월 21일
제38회 성남문화예술제 <성남사진작가협회전>	6월 23일~6월 30일
모란현대미술대전, 성남전통미술대전	7월 3일~7월 10일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위 일정은 5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름다운세상	7월 13일~7월 20일
홍후회화전-감정의 깊이	7월 13일~7월 20일
경기도 사진대전 포토 페스티벌	7월 23일~7월 30일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합창 단스 시어터 <블랙독>

영국의 차세대 안무가 보티스 세바가 이끄는 힙합무용단 파 프롬 더 노름 Far From The Norm의 힙합 단스 시어터 <블랙독>이 국내 초연된다. 세계 공연계에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올리비에상의 2019년 최우수 무용 신작 부문 수상작으로, 힙합을 기반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무대가 돋보인다. 23일 공연 뒤에는 안무가 모니카가 모더레이터로 함께하는 보티스 세바와의 관객과의 대화가 약 30분간 진행된다.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 6월 22일(토) 오후 7시 30분, 6월 23일(일) 오후 3시

티켓 | R석 80,000원, S석 60,000원
문의 | 031-783-8000

 Monthly Guide
<div data-bbox="159 323 538 851"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05 318 1051 833" data-label="Text"> <p>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p> <p>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 <마티네 콘서트>는 '보헤미아의 숲과 들'이라는 주제 아래 체코 출신, 또 체코와 인연이 깊었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6월 20일에는 '드보르자크, 프라하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드보르자크가 미국에 건너가기 직전에 썼던 작품들을 연주하며, 7월 18일은 '나는 세상에서 잊히고'라는 주제로 체코 출신의 오스트리아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체코 국민악파의 거인 야나체크의 작품을 들려준다.</p> </div>

<p>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6월 20일(목)/7월 18일(목) 오전 11시</p> <p style="text-align: right;">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p>

<div data-bbox="159 1037 538 156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05 1037 1051 1556" data-label="Text"> <p><인애, 애: 당신의 뒷모습></p> <p><인, 애: 당신의 뒷모습>은 현대인의 모습과 고민을 반영한 예술을 지향하는 본댄스컴퍼니의 '인간군상' 시리즈로,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인간의 존엄을 테마로 한 두 작품 <그 계곡 바람>과 <리비도>를 선보인다. 최원선 예술감독의 세련된 연출과 탄탄한 안무력을 바탕으로, 자아를 찾는 모습 그리고 가깝지만 때론 아득하게 느껴지는 희망의 몸짓을 동시대적 기법으로 풀어내는 미니멀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p> </div>

<p>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6월 15일(토) 오후 5시</p> <p style="text-align: right;">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p>
--


 Monthly Guide
<div data-bbox="1524 323 1903 851"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970 318 2416 833" data-label="Text"> <p>연극만원 4 <웃음의 대학></p> <p>평단과 대중에게서 인정받은 연극을 단돈 1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 시리즈가 2024년 총 5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네 번째 순서인 7월의 연극만원 <웃음의 대학>은 일본 극작가 미타니 코키의 대표작으로, 1996년 일본 초연 이후 유럽과 북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며 사랑받는 감동의 희극이다. 웃음이 금지된 시대, 웃음을 지키기 위한 작가의 고군분투가 진한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진다.</p> </div>

<p>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7월 5일(금)~7일(일) 오후 7시 30분(금), 오후 2시·6시(주말)</p> <p style="text-align: right;">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p>
--

<div data-bbox="1524 1037 1903 156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970 1137 2416 1556" data-label="Text"> <p>2024 발레스타즈</p> <p>국내외 발레 스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갈라 공연 <2024 발레스타즈>.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1세대 스타 발레리노 김용걸이 예술감독을 맡아, 국내 발레단을 대표하는 라이징 스타 그리고 해외 주요 발레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발레의 저력을 널리 알린 무용수들이 고전부터 현대까지 발레 대표작들의 명장면을 선보인다.</p> </div>

<p>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7월 13일(토) 오후 5시</p> <p style="text-align: right;">티켓 R석 70,000원, S석 50,000원 문의 031-783-8000</p>
--

Monthly Guide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I

성남아트리움의 2024년 '작곡가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 베토벤이다. 6월 26일에는 영웅적이고 웅장하며 기품 넘치는 악상의 걸작을 산출했던 베토벤 중기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두 작품, 교향곡의 대명사 와도 같은 5번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들려준다. 인천시향 예술감독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지휘자 이병욱, 하마마츠 콩쿠르 3위 등에 입상한 차세대 피아니스트 이혁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장소 |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 6월 26일(수) 오후 7시 30분

티켓 | R석 35,000원 S석 25,000원
 문의 | 031-783-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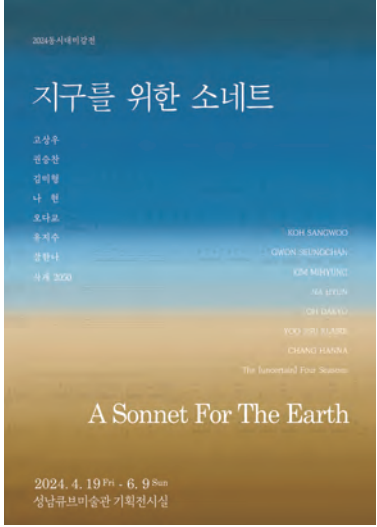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II

성남아트리움의 2024년 '작곡가 시리즈' 두 번째 순서. 7월 27일 두 번째 공연에서는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오프닝과 영화 <킹스스피치> 등으로도 친숙한 교향곡 7번, 바이올린 협주곡의 걸작으로 꼽히는 베토벤의 유일무이한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된다. 수원시향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지휘자 최희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무대에 선다. 두 번의 연주회 모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아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소 |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 7월 27일(토) 오후 5시

티켓 | R석 35,000원 S석 25,000원
 문의 | 031-783-8000

Monthly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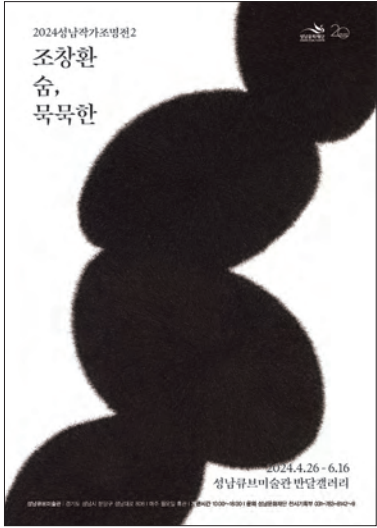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현대미술로 풀어내는 성남큐브미술관의 기획전시 '동시대미감전'. 올해에는 현재 초국가적 이슈인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나는 자연과 생태, 사회의 면면을 동시대 미술의 시선에서 조망한다. 작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후·환경 문제를 전하는 작가 외에도, 작업 과정에서 화학 연료 기반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이며 기후위기를 예술로 풀어내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 4월 19일(금)~6월 9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 무료 관람
 문의 | 031-783-8142~9





2024 성남작가조명전 2

<조창환: 숨, 묵묵한>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을 응원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이 올해 두 번째 전시로 조창환 작가의 <숨, 묵묵한>을 선보인다. 들고 나는 숨결이 생명체를 형성하듯 물감을 한 가닥씩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숨'을 표현하는 작가의 대표작 <BREATH> 시리즈를 비롯, 3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 4월 26일(금)~6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 무료 관람
 문의 | 031-783-8142~9

<p>Q</p>	<p>Monthly Guide</p>
	<p>2024 성남작가조명전 3 <이계진: 우연한 삶> 조창환 작가에 이은 '성남작가조명전'의 세 번째 전시는 이계진 작가의 <우연한 삶>이다. 성남큐브미술관이 성남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작가들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진행한 <2023 성남의 발견> 공모 선정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소금과 먹을 주된 재료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작업해 온 <소금산수> 시리즈 중 대표작 그리고 신작을 소개한다.</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6월 28일(금)~8월 18일(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p>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엄선한 주제 기획전. 동시대 작가 8인(박상미, 고혜숙, 윤길영, 유한이, 유봉상, 조창환, 이계진, 황현숙)의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사유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2월 16일(금)~12월 2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2024

SEASON

성남아트센터
2024 시즌 하이라이트

SEASON 2024

파 프롬 더 노름 <블랙독>
 Far From The Norm <BLKDOG>
 6.22.Sat ~ 6.23.Sun | 오페라하우스

<발레 스타즈>
 <Ballet Stars>
 7.13.Sat | 오페라하우스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 <백조의 호수>
 Xi'an Acrobatic Troupe <Swan Lake>
 8.23.Fri ~ 8.25.Sun | 오페라하우스

**존 엘리엇 가디너 &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베토벤 교향곡 4번 & 5번**
 Sir John Eliot Gardiner & Orchestra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Beethoven Symphony No.4, No.5>
 10.9.Wed | 콘서트홀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
 <겨울나그네>**
 Baritone Matthias Goerne &
 Pianist Maria João Pires
 F. Schubert <Winterreise>
 10.26.Sat | 콘서트홀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Universal Ballet <The Nutcracker>
 11.29.Fri ~ 11.30.Sat | 오페라하우스

BRAND SERIES

2024 마티네 콘서트 '보헤미아의 숲과 들'
 2024 Matinée Concert
 3.21 / 4.18 / 5.16 / 6.20 / 7.18 / 8.22 / 9.19 /
 10.17 / 11.21 / 12.19. Thu | 콘서트홀

2024 연극만원 시리즈 '예술가들의 이야기'
 2024 SNART's Play Series
 3~9월 | 앙상블시어터

문의 | 031-783-8000

SNART

SEASON 2024
SNART

성남시 중학생을 위한 명품 오페라, 성남미래교육 오페라 <마술피리> 성료



끄는 코리아쿰오케스트라의 연주, 소프라노 김제니, 테너 강요셉, 소프라노 이상은, 바리톤 김경천 등 국내 대표 성악가들이 참여해 제작극장의 역량이 녹아든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

5월 22일 1회 공연을 관람한 계원예술중학교 박솔지 학생은 “평소에 공연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 데다

성남문화재단이 ‘2024 성남미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 경험 확대를 위한 제작 오페라 <마술피리>를 5월 22일(수)~24일(금)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였다.

성남문화재단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 미래교육팀이 함께하는 ‘2024 성남미래교육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오페라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기초 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3일간 총 5회의 공연을 통해 성남시 소재 38개 중학교의 271개 학급, 7,683명의 학생들이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일반 클래식 애호가를 대상으로 한 유료 공연 이상의 수준 높은 프로덕션이었다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패션·공예·브랜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구호가 연출과 무대, 의상, 조명, 영상 디자인을 맡아 새롭고 감각적인 미장센의 예술 세계를 선보였고, 지휘자 김성진이 이

가 오페라는 처음이라 조금 걱정했는데,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성악가들의 뛰어난 노래와 연기, 화려한 무대까지 너무 재미있게 관람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은 아이들이 풍부한 감성과 넓은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삶의 가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청소년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과 영국의 예술이 만나다, 성남문화재단×왕립예술대학^{RCA} 공동프로젝트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적인 권위의 예술 및 디자인 대학원으로 1837년 설립 이후 1896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이라는 교명을 하사 받았으며, 1967년 왕실헌장을 받음과 동시에 정식 대학 지위로 승격되었다. 미술·디자인·건축·패션·애니메이션 등 시각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예술 기관으로 데이비드 호크니, 트레이시 에민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배출했고, 대학평가기관 QS의 2024년 세계 대학 순위 중 아트·디자인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성남문화재단과 영국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이하 RCA)*의 공동프로젝트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Re-Imagining the City> 워크숍이 7월 1일~5일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상호간 예술 분야 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의 첫 번째 공동프로젝트다. 성남문화재단과 RCA가 공동 기획·개최하는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워크숍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도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성남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탐구하고 추억들을 공유하며, 협력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성남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되었다.

문화적·교육적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둔 RCA 교수진의 강의와 교수학습, 주재료(골판지)를 활용한 자기 주도 및 참여자 간 협업 활동으로 진행된다. 진행 과정에서 RCA 동문이기도 한 한국인 퍼실리테이터는 지난 2023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상호간 예술 분야 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의 첫 번째 공동프로젝트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워크숍이 RCA의 선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함과 동시에 세대를 초월한 참여자 간 대화와 학습, 교류, 참여를 통해 창의적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성남'이란 도시에 기여하는 역할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 결과물은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전시 예정이다.

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다채로운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으로 미래 예술가 키운다, 2024 성남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



프로그램 '경기틴즈뮤지컬-성남'을 매년 진행한 만큼, 청소년 뮤지컬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여기에 교육지원청의 청소년 모집과 공연 제작 지원 등의 제반 협력이 더해져 청소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4월 20일(토), 오디션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 20명을 최종 선발했고, 참가자들은 5월 18일(토)부터 12월 15일(토)까지 뮤지컬 대본 작성부터 음악, 안무 등 뮤지컬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현재 뮤지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지난 '경기틴즈뮤지컬-성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스태프로 함께해, 참가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실어 준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이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 맞춤형 예술교육인 '2024 성남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세대 육성에 나선다.

'2024 성남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는 재단이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뮤지컬 및 융복합예술 분야 체험과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꿈꾸는 예술학교-청소년뮤지컬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2024 성남공유학교-지역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성남공유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실현과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성남의 특성과 교육 환경을 반영한 학교 밖 교육 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플랫폼이다.

재단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오는 12월에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하는 무대를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선보이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남 청소년 뮤지컬 공유학교 참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향후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에도 반영할 수 있는 등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기반도 마련했다.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 향상은 물론,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으로 자신의 꿈과 연계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n my hand, by our side



www.instagram.com/seongnam_arts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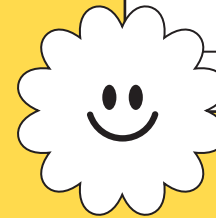
20주년을 기억해

#성남문화재단창립20주년
#20주년이니까 #20일마다 #퀴즈맞히면 #선물이팡팡

매달 20일엔
성남아트센터 인스타그램으로 Go Go!

성남문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특별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알아 두면 도움이 될 정보부터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TMI까지!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어지는 릴레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고 풍성한 선물도 받아 가세요.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인스타그램 릴레이 퀴즈 이벤트

- 이벤트 채널** 성남문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seongnam_artscenter)
- 참여 기간** 2024년 4~12월 매달 20~23일(당첨 발표는 매달 25일)
- 당첨 방법**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랜덤 선정
- 이벤트 경품** 성남아트센터 기획 공연·전시 초대권, 성남아트센터 입점 레스토랑 <피글릿> 식사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매달 경품 품목 및 수량 상이)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단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언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 / 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어은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이앤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칠죽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김상한/오다영 아람휴비스(주) CEO
박동순/강송희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변봉덕/이매연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우문식/조남숙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이상우/강지선 / 부동산라피 대표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단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옥션 이사

단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육자 前 (주)씨너스 회장
최희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칠죽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렐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종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국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박미경/강대식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배지영/윤영민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백종훈/지용애 로즈피부과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과 청담점 원장
서정림 한국디지털콘텐츠(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수자/탁순희 치과과사 / 한국화가 前 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재)유엔젤보이스 제작감독
오종영/이승희 신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유성희/유성은 (주)인홍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연옥/조상수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최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숙/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최이종덕/김영주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상규/정효정 AMK
임현주/김윤선 한화엔엑스엠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세영/김준식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어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결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의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前 국립서울병원장 / 서양화가
조남주/이규철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최병주/박인수 미술단체 <線과色> 前 명예회장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삼업 대표이사 회장
허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윤향남 화가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최은희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까지회원
김성민 운중농원갈비 대표
목영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박미영

백선정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오미주 성악가
우주호 (여)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윤이 HCS 대표
정희재 지휘자
조현우 변호사
최진욱

명예회원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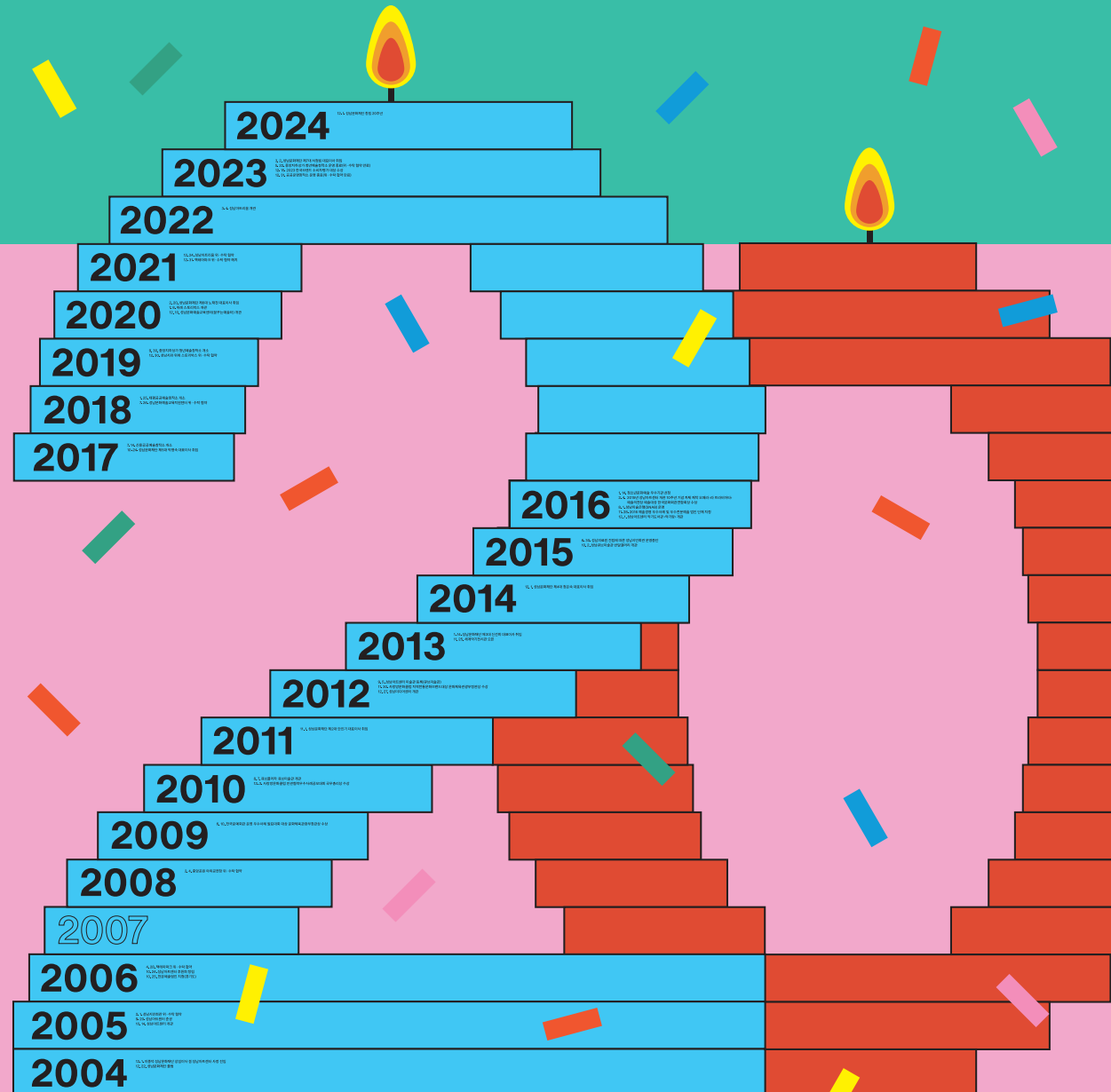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2004-2024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

스무살

예술이·다·너!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808, SEONGNAM-D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3514
2004-2024 ©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